
碩士學位論文

濟州島方言의 ‘하다’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1998年 6月

濟州島方言의 ‘하다’ 研究

指導教授 姜 榮 峯

金 美 辰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美辰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8年 6月

A STUDY of 'hæda' in CHEJU DIALECT

KIM, MI-JIN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Young-bon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8.

目 次

I. 序論	·
1. 研究 目的	1
2. 先行 研究 檢討	1
3. 研究 方法 및 範圍	5
II. ‘하다’의 機能	
1. ‘하다’의 發生	7
2. ‘하다’의 機能에 對한 見解	8
3. ‘하다’의 二元的 機能	21
III. 濟州島方言에서의 ‘하다’	
1. 명사+하다	25
2. 부사+하다	33
1) 동작성 부사+하다	33
2) 상태성 부사+하다	35
3. 형용사+하다	39
1) 濟州島方言의 빛깔형용사	42
2) 中世國語의 빛깔형용사	47
IV. 結論	51
參考文獻	53
Abstract	56

I. 서론

1. 연구목적

표준어에서 '하다'는 서술 기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생산적인 요소이다. 한자어, 고유어를 막론하고 많은 어근, 명사, 혹은 부사 등이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이룰 뿐 아니라 문장의 어미 뒤에 독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¹⁾ 표준어에서 '하-'가 차지하는 문법적 비중이 크고, 또 그 쓰임의 양상도 다양해서, '하-'는 많은 문법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에서 '하다'에 대한 연구는 그 쓰임이나 활용이 표준어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준어에 대한 '하다' 연구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제주도방언에서의 '하다'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표준어에서의 '하다'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에 비해서 제주도 방언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하다' 동사의 출현이 중세국어에서는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중세국어의 잔영이 제주도 방언에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하다' 동사의 출현과 의미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품사면에서 '하다'는 동사, 조동사, 대동사, 사역동사, 파생접미사 등으로 분석되었고, 의미면에서 어떤 학자들은 '하다'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다'의 연구는 이 동사 자체의 의미나 통사적

1) 김제열, 『'하다'의 의존적 성격 고찰』, 『경희어문학』 15 (경희대 국문학과, 1994), p.127.

성질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쓰이는 선행 요소의 성질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주시경(1910)으로부터 시작하여 박승빈(1935), 최현배(1961)에 이어 1960년대 이후에는 변형문법이론이 도입되면서 ‘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심재기(1980)는 형태론에 국한하여 동사화소라는 명칭으로 ‘하-’의 기능을 나누어 설명하였고 김영희(1984)는 ‘하-’를 포괄동사라고 칭하고 대동사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주시경(1910)은 ‘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1) 노래를 하(움뭉: 본동사)
- (2) 가. 일하, 말하, 나무하 (임뭉을 움뭉되게 하는 것: 명사→동사 파생접미사)
나. 더하, 다하, 잘하, 못하(억뭉이 움뭉되게 하는 것: 부사→동사 파생접미사)

주시경(1910)은 (1)의 ‘하-’는 본동사로 보고 (2)의 ‘하-’는 ‘움뭉되게 하는 것(동사 파생접미사)’으로 다루었다. 또 현행 학교문법에서 보조동사로 다루어진 ‘하-’도 ‘움뭉되게 하는 것(동사 파생접미사)’으로 보아 ‘자게 하-’, ‘크게 하-’, ‘일하게 하-’, ‘크기도 하-’, ‘가게는 하-’를 기다란 하나의 움뭉(동사)으로 보았다.

박승빈(1935)은 ‘하-’를 명사의 세(勢)만 가진 동사로 보았다. 특정한 동작 의미가 없으므로 혼자 쓰일 수 없고 특정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야 그 의미가 비로소 나타난다고 했다.



- (3) 가. 그가 공부를 하오.
나. 그가 결정을 하얏다.
- (4) 가. *그가 하오.
나. *그가 하얏다.

(3)에서와 같이 ‘하-’는 ‘공부, 결정’ 등의 특정단어와 연결 되어야 쓸 수 있고, (4)에서 처럼 혼자서는 아무런 구체적 의미도 못 나타낸다고 했다. 동작 의미를 지닌 ‘사랑, 일, 구(求)’ 등에는 어미로 첨가되어 ‘사랑하-, 일하-, 구하-’의 동사를 만든다고 보았다.

최현배(1961)는 ‘하-’의 문법적 기능을 동사, 파생접미사, 여러 가지 보조동사로 분류 기술함으로써 현행 학교문법의 ‘하-’에 대한 기틀을 굳혔다.

- (5) 운동을 한다.(움직씨)
- (6) 그. 공부하다. 더하다.(움직씨로 만드는 뒷가지)
 - 나. 행복하다. 신하다.(그림씨로 만드는 뒷가지)
- (7) 그. 남의 형편을 돌보지 아니한다.(지움도움움직씨)
 - 나. 두시간씩 공부하게 한다.(하임도움움직씨)
 - 다. 이 약을 먹어야 한다.(마땅함도움움직씨)
 - 리. 나도 가기는 간다.(그리여김도움움직씨)
 - 미. 잘난 체 한다.(거짓부리도움움직씨)
 - 비. 죽을 변하였다.(지나간기회도움움직씨)
- (8) 그. 멀지 아니하다.(지움도움그림씨)
 - 나. 크기는 하다.(그리여김도움그림씨)
 - 다. 갈 듯하다.(미쁨도움그림씨)
 - 리. 먹음직하다.(잡어치도움그림씨)

이러한 논의는 '하-'의 의미와 문법범주를 설명하는 데는 실용적이지만 본동사와 접사, 보조동사와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표면적 구조를 대상으로 한 분류방식이기 때문이다.

송석중(1967)²⁾은 '선행명사+하'를 하나의 명사적 동사로 보고 '공부를 하-'와 '공부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이며 '공부를 하-'에서 목적어 표지가 임의로 탈락 '공부하-'의 동사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폐하다, 변하다, 구하다'의 경우는 '하-'가 완전히 동사어간 형성소로 굳혀진 경우라고 보았다. 그러나 '하-'를 명사동사화 소로 보고 목적어 표지 '-을/-를'이 임의로 탈락해서 '공부하-'형의 동사를 형성한다고 보고있다.

박병수(1977)³⁾는 '하-'가 의미없는 형식요소라는 데 반대 의견을 밝히고, '하-'를 의미가 있는 하나의 완전동사로 보았다. 종래에 조동사로 처리되었던 것까지 모두 하나의 완전동사로 처리했다. '하-'가 분명한 동작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라고 지적하고 그 증거로 다음 예문을 들었다.

- (9) 그.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
- 나. 나는 그 여자를 싫어한다.

2) Song Seok-choong,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Indiana University, 1967), p.66.

3) Park Byung-Soo, 'The Korean Verb *ha* and Verb Phrase Complementation,' (*Language Research*, Vol.10, No1, 1974), pp. 4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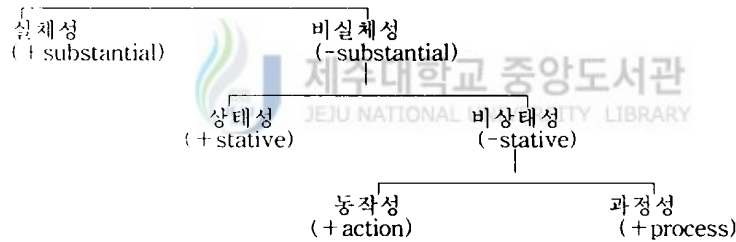
- (10) ㄱ. 나는 그 여자가 좋다.
 ㄴ. 나는 그 여자가 싫다.

(9)의 '좋아하-', '싫어하-'는 비상태성 동사이고, (10)의 '좋다, 싫다'는 상태성 동사인데 그 차이는 분명 '하-'때문이며 (9)와 (10)은 서로 다른 내면구조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보았다. (9)의 '하-'를 변형과정에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심층구조에서부터 도출된 완전한 동사로 보았다. 이는 '하-'를 형식요소로 보려는 견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다.

송병학(1974)은 '하-'를 대리동사와 대동사로 나누어 소위 파생형용사와 파생동사의 '하-'가 접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다. '하-'를 '동족목적어 타동사의 대동사'라고 하고 변형 과정을 설정했다.

시정수(1975)는 이제까지의 논의가 부분적인데 반해 '하-'가 나타나는 모든 단어와 구문을 통틀어서 대동사와 형식동사의 개념으로 '하-'를 설명했다. '선행 요소 + 하-'가 단어를 형성할 때 선행 요소가 실제성일 때는 대동사로 비실체성일 때는 형식동사로 했는데 복합문 구성에 나타나는 '하-'도 대동사와 형식동사로 나타난다.

(11) <하- 선행 요소의 의미적 특질>⁴⁾



4) (11)의 분류체계에 따른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ㄱ. 실체성 선행 요소: 밥, 떡, 나무, 술, 담배, 빛, 닳 / 학교, 회사, 다방, 음식점, 목장 / 역사, 지리, 생물, 국사, 문학, 소설 / 500원, 얼마, 한잔, 한바탕
- ㄴ. 상태성 선행 요소: 행복, 다행, 평화, 용감, 혼잡, 건강 / 따듯, 차분, 깔끔, 씩씩, 단단, 착 / 빨질빨질, 거칠거칠, 미끈미끈, 반들반들 / 선, 악, 편, 급, 장, 후, 능, 참, 풍, 흰
- ㄷ. 동작성 선행 요소 : 운동, 활동, 명령, 독서, 출석, 연구 / 절, 굶, 간직, 차지, 놀음, 싸움 / 선생질, 도둑질, 가위질, 낫질, 손질, 술질 / 현대화, 기계화, 문자화, 선진화, 순화, 미화 / 구, 피, 취, 향, 행, 위, 동 / 드라이브, 스타트, 리드, 엔조이
- ㄹ. 과정성 선행 요소: 사망, 변화, 침몰, 냉각, 진화, 성장 / 약화, 강화, 미화, 순화, 완화

어휘의미론적 접근을 한 심재기(1980)는 ‘하-’가 지닌 의미론적 허구성에 근거하여 ‘하-’를 파생접사로 보고 ‘하-’가 서술기능 대행, 서술기능 완결, 서술기능 이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통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술기능 대행은 주로 [실체성 명사]와 관련하는데 화용론적 상황을 전제하여 적합한 동사가 전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서술기능 완결은 [-실체성 명사]를 선행 요소로 하여 일차적으로는 서술기능을 수행하고 이차적으로는 선행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복사투영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기능 이행은 상태동사 또는 감정동사의 부정형이 선행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하-’가 통사 구조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붙여진 명칭이다.

김영희(1984)는 좀 색다른 주장인데 ‘하-’는 외연이 넓은 만큼 내포가 적은 모호성을 띤 동사로, 이러한 모호성은 문맥이나 상황 앞에서 구체적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대동사는 대용어의 본질적 특징인 대치기능과 지시기제를 가지는 ‘이리하다 : 이리하다, 그리하다 : 그리하다, 저리하다 : 저리하다’ 등이며 ‘하다’는 대동사가 아니라 어휘의미론적 계층구조상의 상의어인 포괄동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많은 국어학자들이 ‘하다’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통일된 견해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하다’를 대동사나 형식동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다. ‘합시다’가 ‘먹읍시다’를 대치하나 그것이 ‘그립시다’로 대치되지 못하는 것은 ‘하다’가 일반 대동사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일반 대동사는 ‘그리하다, 이리하다’ 따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를 형식동사로 처리할 때의 문제점은 다음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다.

- (12) ㄱ. 비릇다. 못다. 삼가다. 아니다. 생각다.
 ㄴ. 비릇하다. 못하다. 삼가하다. 아니하다. 생각하다.

(12ㄱ)은 중세국어 동사들인데 표준어에서 (12ㄴ)처럼 ‘선행소+하다’형 동사로

쓰이는 것들이다. '비룻다, 삼가다' 등의 분명한 동사를 '동사의 형식을 갖추어 주는 형식동사' '하-'를 붙여서 또 동사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⁵⁾에 형식동사라는 설명이 곤란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다'가 대동사라거나 형식동사라거나 하는 논의보다는 '하다'는 원래 본동사이며 명사, 부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동사화하거나 형용사화 하는 작용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형용사화 하는 경우는 현대에 이르면서 형성된 것이고 중세어나 제주도방언에서는 선행 요소의 성격에 상관없이 동사화하는 것이 우세하다.

표준어에서와 같이 많은 출현을 보이는 제주도방언의 '하다'는 명사와 부사, 명사형과 부사형에 첨가되어 동작성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명사+하다', '부사+하다', '형용사+하다'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 보고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겠다. 특히 '빛깔 형용사+하다'는 제주도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것으로, 중세국어에서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공통점을 찾아보겠다.

또한 '하다'가 본동사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예를 제외하고 명사나 부사와 결합하는 것만을 다루고자 한다. 전자는 목적어를 갖는 본용언임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후자에 국한하여 기능과 결합 양상을 통하여 '하다'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5) 이창덕, 『동사 '하-'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p.7.

Ⅱ. '하다'의 기능

1. '하-'의 발생

'하-'의 발생은 국어 어휘 체제 안에서 통사적 기능이 같은 것들을 대신·통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유개념 어휘의 필요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라는 두 단어를 통합해서 표현하는 '어버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개, 소, 말, 호랑이, 사자' 등을 통합해서 표현하는 '동물'이라는 단어가 생기듯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물을 통합적으로 대신하는 어휘로 '무엇(이것, 그것, 저것)'이라는 상위개념의 단어가 생기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나타낼 수 있는 '누구'라는 단어가 생기듯이, 모든 동사를 대신 쓰일 수 있는 상위개념의 어휘로 '하-'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동작동사를 대신하는 '하-'는 '무엇(을) 하-'로 나타나고, 상태동사를 대신하는 '하-'는 '어떠하-'로 나타나게 된다.

대동사 '하-'는 전체동사를 대표하는 상위개념의 동사이기 때문에 실제 표면구조에서 특정 동작 의미를 나타내려면 선행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되는 선행 요소와 '하-'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합성되어 하나의 합성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 때 두 성분이 하나의 낱말로 합성되는 경우, 두 성분이 기본형이고 합성어를 형성하는 경우는 이차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⁶⁾

- (1) 가. 공부를 한다.
 - 나. 공부를 잘 한다.
 - 다. 공부를 안 한다.
- (2) 가. 공부하다.
 - 나. *잘 공부한다.
 - 다. *안 공부한다.

6) 이창덕, 『동사 '하-'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4), p.18.

(1)의 '공부를 하다'는 '잘, 안' 등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2)의 '공부하다'는 '잘, 안'의 수식이 불가능하다. 이는 '하다'의 독립성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공부를 하다'형이 '공부하다'의 합성어보다 기본구조임을 증명해 준다.

2. '하다'의 기능에 대한 견해

'하-'에 관한 연구 내용은 제각기 다른 바가 있어서 어떤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부 논저들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펴기도 한다. 다만 대체적인 면에서 근접한 견해를 보인 것들을 한데 모아 분류했다.

1) '하'의 다기능설

'하-'의 다기능설이란 '하-'는 본동사, 용언 형성접미사 및 10여 가지의 보조동사의 기능을 지닌다고 보는 견해로서, 가장 널리 통용되어온 학설이다. 이에 주시경(1910), 최현배(1937) 등의 전통문법서와 정원수(1989)가 속한다.

주시경은 '하-'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3) 착하다, 단단하다 [엇(형용사)]
- (4) 노래하다, 너하다 [움(동사)]
- (5) 노래를 하다 [임(명사)+겻(토시)+움]
- (6) 일하게 하다 [임+움+역(부사)+움]

(3), (4)의 '하-'는 각기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 형용사와 동사를 이루는 전성접미사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5)의 '하-'는 토씨를 사이에 두고 명사와 분리되어 동사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6)의 경우는 명사 '일'에 동사 '하-'가 첨가되어 동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6)의 경우는 명사 '일'에 동사 '하-'가 첨가되어 동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게'가 첨가되어 부사가 되고 다시 동사 '하-'가 덧붙여 전체가 동사로 된다고 풀이하였다. (6)를 제외한 (3), (4), (5)의 설명 방식은 뒤에서 다루는 최현배(1937)에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에 관한 전통적 기술 골자는 주시경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최현배(1937)는 '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부여하였다. 그 각 기능 범주와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7) 본동사: '공부를 하다' 따위처럼 '하-'가 단독으로 쓰임.
- (8) 동사 진성접미사: 선행어를 동사로 바꿈.
공부한다(명사+하다), 구한다(어기+하다), 반짝반짝한다.(부사+하다)
- (9) 형용사 진성접미사: 선행어를 형용사로 바꿈.
행복하다(명사+하다), 착하다(어기+하다), 둥글둥글하다.(부사+하다)

위의 예 외에도 부정 보조동사, 부정 형용사, 추측 보조형용사, 가식 보조형용사, 가치 보조형용사, 시인적 대응조동사, 시인 보조형용사, 당위 보조동사, 사동 보조동사 등 13가지의 문법적 또는 의미적 기능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형태가 지니는 공통적인 의미나 기능에 대하여도 뚜렷한 언급은 없다. 곧, '하-'가 여러 환경에 따라 드러낸다고 생각되는 의미 기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원수(1989)는 '하-'가 선행 요소와 어떠한 통합 과정을 거쳐 어휘 형성을 하게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는 이원적 기능을 가진다. '하-'는 기원적으로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동사로서의 특성은 어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포괄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파생접미사로서의 기능도 점차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어간과 접미사의 기능 사이에는 중간 범주가 인정될 수 있으나 주된 기능은 이 두 가지의 이원적 기능 특성이다. '철수는 밥 먹고 산책하는 일이 힘들었다.'와 같은 경우의 '하-'는 대체로 독립된 성분으로 선행 요소의 통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원 여러분'과 같은 경우는 '하-'가 선행 요소와 긴밀한 형태론적 결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는 '하-'가 점차로 파생접미사로서의 특성을 굳혀 가는 예가 된다.

2) '하-'의 허형태설

'하-'는 허사적 문법기능소임을 강조하는 허형태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하-'는 그 허형태성이 본질이라고 주장한 논저를 주로 살펴보겠다. 박승빈(1935)에서 비롯되었으며, 근래에 들어 서정수(1975) 등에 이어지고 있다.

박승빈은 '하-'가 특정한 동작을 표시하는 의미를 지니지 아니하고 '문법상 동사됨의 세(勢)'를 표시하는 형태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求하오, 사랑하오, 활동하오,

번쩍한다.'에서 '求, 사랑, 활동, 번쩍' 등은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였으나, 문법상 동사됨이 '勢'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동사의 문법적 勢만을 표시하는 '하-'가 첨가되어 동사라는 품사가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였다. 곧, '하-'는 실질적인 동사성이 없이 문법적 형식적 기능만을 지님으로써 실질적 동사를 지닌 선행어에 문법적 형식요소를 갖추게 하는 문법적 기능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 '하-'의 문법적 기능은 두 가지 범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하나는 동사형성어미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동사일 경우이다. 앞의 '求하오' 따위에서의 '하-'가 어미일 경우이며, '공부를 하오' 따위는 동사일 경우이다. 곧 전자처럼 '하-'가 선행어에 첨가되어 쓰일 때는 선행어에 동사적 勢를 부여하는 어미이고, 후자에서처럼 선행어에서 따로 떨어져서 쓰일 때는 동사라고 하였다. 어느 경우의 '하-'나 실질적인 동사성이 없는 '勢'에 불과하고 선행어의 실질적인 동사적 의미와 결합된다고 한 점이 색다르다. '공부한다'에서의 '하-'는 문법적 勢를 표시하는 '어미'이고 '공부를 한다'에서의 '하-'는 '동사'라고 하였으나 어느 경우나 선행어가 없이는 쓰일 수 없는 동사의 '勢'일 뿐이라고 하였다.

서정수는 '하-'라는 형태의 문법적 및 의미적 특질을 분석하여 그 본질적 의미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하-'의 여러 의미 기능은 그 자체의 본질적 의미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 요소의 의미적 특질에 기인한다고 보고, 그 선행 요소의 의미적 특질을 분석함으로써 '하-' 자체의 본질적 기능을 밝히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하-'의 본질적 기능은 형식동사로서의 기능과 대동사로서의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형식동사로서의 '하-'는 동작성이나 상태성의 서술적 의미를 지니는 선행 요소로 하여금 문법적 형식을 갖추게 하고 있다. '운동'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동작성]을 지녔지만 형태상으로는 명사이므로 서술어로서의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동작성을 지닌 선행어에 서술어로서의 문법적 기능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동사로서의 '하-'는 선행 요소에 실질적인 서술 의미가 없을 경우에 특정한 의미의 추상적 서술어를 대신하는 기능을 보인다. '밥하다'에서 '하-'의 선행어 '밥'은 스스로 서술적 기능을 드러내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의 '하-'는 앞에 말한 형식동사의 기능만 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밥'과 같은 선행어는 동작성이 전혀 없고 동작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경우에도 '하-'가 형식동사의 기

능만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서술 기능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밥하다'와 같은 경우의 '하-'는 실질적인 서술 의미와 관련된 구실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미해석으로 볼 때 '밥하다'는 '밥짓다'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므로 이런 환경에서의 '하-'는 '짓다'와 같은 의미와 대응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하-'자체가 그런 의미를 고유 의미로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술하다'와 같은 경우의 '하-'는 '마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앞에서 '하-'가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동사라고 한 것보다도 모순이 된다. 그 상황에서 예상될 수 있는 특정한 의미의 추상적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 기능을 지닌다고 결론 짓고 있다.

서정수(1975)는 '하-'의 선행 요소를 그 의미적 특질에 따라 '실체성'과 '비실체성'으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상태성'과 '비상태성'으로 가르고 있다. 실체성 요소는 사람, 동물, 물체, 물질, 장소, 시간 등을 지시하는 실질 명사 따위이다. 이런 실체성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하-'와 어울리지 못한다. 비실체성 형태는 운동, 파괴, 변화, 정직, 다행 따위와 같이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 또는 성질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3) 허형태성, 본동사성 등의 점유설

'하-'는 일부 쓰임에서는 허형태성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환경에서는 본동사 또는 낱말 형성 접미사 등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다. 남기심(1973), 윤만근(1982), 하치근(1989)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남기심(1973)은 완형보문의 기술과 관련하여 '하-'의 기본 특성을 일부 다루고 있다. 첫째로 다음과 같은 경우의 '하-'는 동사어간을 이루는 일종의 접미사라고 하였다.

- (10) 나는 “이젠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 (11) 북소리가 “둥둥” 하고 울렸다.
- (12) 총이 “번쩍번쩍” 하고 빛난다.

(10)의 '하-'는 (11), (12)의 의성·의태어가 선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보문 전체를 동사화하는 동사형성접미사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다음과 같은 지칭문 따위에서는 '하-'가 일종의 대동사의 구실을 한다고

본다.

- (13) 이곳을 빌라도 광장이라고 { a. 합니다.
b. 부릅니다. }

(13a)의 ‘하다’가 (13b)의 어휘를 대신 가리킨다고 할 때, ‘하-’는 일종의 대동사의 기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형 수식에 첨가되는 ‘하-’는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문법적 형식요소에 불과하다.

- (14) 가. 나는 그가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나. 나는 그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다.

(14 가, 나)에서 ‘하-’는 생략 되어도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하-’가 ‘말하-’ 따위의 축약이 아니라 문법적 형식요소에 불과함을 뜻한다고 한 것이다.

넷째, ‘말을 하다’, ‘생각을 하다’ 따위에서 선행명사와 ‘하-’는 일종의 ‘공존관계’에 있다 하고 ‘-를’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한 개의 동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목적어+동사>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실은 단일한 완형보문동사라는 것이다.

윤만익(1982)은 일부 옛말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하-’의 기본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하-’는 조사적, 계사적인 성격과 본동사의 성격이 있다. 전자는 선행어에 첨가되어 일종의 접미사처럼 동사형성의 구실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선행어를 목적어로 하는 타동사적 구실을 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첫째로 ‘하-’는 조사적, 계사적 기능을 한다.

- (15) 가. 그가 날씬하다.
나. 그가 말을 잘한다.
다. 그가 공부를 한다.

(15)의 ‘하-’는 선행어와 밀착되어 일종의 합성어를 형성하는 조사적, 계사적 기

능을 한다. 이것은 '하-'가 형태론적 기능을 보이는 경우로서 그 자체가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하-'가 이런 조사적, 계사적 기능을 보이는 일부 증거는 옛말 자료나 외래어 차용 방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 가름하다(대신하다), 계집하다(장가가다) <명사+하>

(17) 그르하다(謬), 살하다 <부사+하>

(18) 누르하다, 가만하다 <형용사+하>

문장(16)~(18)의 경우에 쓰인 '하-'는 일종의 토의 구실을 한다고 할 만하다. 또한 이런 전통적 언어에 나타난 '하-'의 기능은 현대의 외래어 차용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만공하다, 용공하다, drive하다, kiss하다' 등이 그 예이다.

둘째 타동사로서의 본동사 구실을 한다고 기술하였다.

(19) 가. 그는 빨리 말을 했다.

나. 그는 빨리 말∅했다.

(20) 그는 빨리 말했다.

(19)에서 처럼 '하-'와 선행어가 분리되고 '-를'이 개입되거나 그것이 생략되는 경우 '하-'는 타동사로서의 본동사 구실을 한다고 본다. (20)처럼 '하-'가 선행명사와 밀착되어 쓰이면 동일한 의미라도 형태론적으로 합성어를 이루게 되므로 다른 성격을 보인다고 본다.

하치근(1989)은 '하-'가 낱말 파생접미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일부 실체성선행 요소와 결합할 때는 '풀이씨'이고 그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형식적 풀이씨'라고 하였다. 곧 다음과 같은 보기에서 '하-'는 (21)의 경우에는 풀이씨로서, 그 밖의 경우는 형식적 풀이씨로서의 기능을 보이며 어느 경우나 파생접미사는 아니라고 본다.

(21) 빨래하다, 나무하다, 밥하다.

(22) 공부하다, 포근하다, 무시무시하다, 푸술푸술하다.

첫째 '하-'가 파생접미사가 될 수 없는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곧 파생접사는 특정한 통어범주에 속하는 뿌리(어근)에 일률적

으로 붙어야 하고 특정한 통어범주에 속하는 낱말만을 파생해야 한다. 그런데 ‘하-’는 명사, 의존성 어기, 상징성 어기 등과 통합되고 움직씨나 그림씨를 파생하여 결합된 뿌리의 통어 범주가 같지 않고 파생된 낱말의 통어범주도 같지 않다. 따라서 ‘하-’는 접미사로서의 적격 조건에 맞지 않다.

둘째 ‘하-’가 명사성 뿌리에 붙어 동사를 파생하려면 그것이 가진 자질이 교점에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23) 공부하다(동사) [동작성]

공부(명사) [동작성] 하

‘공부하다’가 가진 동작성은 ‘공부’에 이미 나타나 있어서 ‘하-’가 가진 자질이 교점에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 요소와 ‘하-’사이에 분리성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경계가 놓여져서 이 경우의 ‘하-’는 형식적인 풀이씨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하-’의 선행 요소가 실체성을 지니므로 ‘하-’자체에 동작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24) 나무하다(동사)

나무(명사) 하다
[실체성] [동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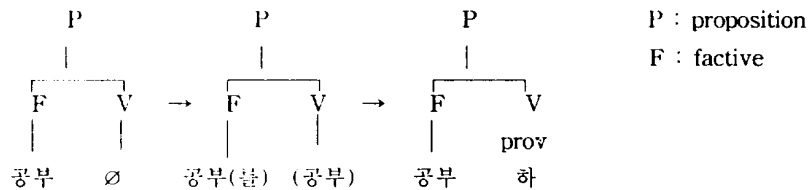
위와 같은 경우는 선행어가 동작성이 없고 ‘하-’에 있다고 느껴지므로 그 동작성이 교점에 스며든다. 그러나 이 때도 양자의 분리성이 강하여 둘 사이에 낱말 경계가 놓이므로 이른말 구조로 여겨진다. 이 때의 ‘하-’는 실질적인 풀이씨로 본다. 한편 ‘포근하다’ 등과 같이 상태성 선행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선행어가 이미 상태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의 자질이 교점에 스며들지 못한다. 이런 경우의 ‘하-’는 파생 접미사가 아니고 어근의 서술성을 보충해주는 형식적인 풀이씨이다.

4) 대동사/ 동사화소실

‘하-’는 대동사 또는 내리동사로서 선행 어근을 동사나 형용사로 만든다고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대동사는 주로 동사화소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나 접미사와는

달리 작용한다고 본다. 대체로 이런 분류에 들 수 있는 것들은 송병학(1974), 심재기(1982), 이창덕(1984), 성광수(1976) 등이다.

송병학(1974)은 '하-'를 대동사(pro-verb)와 대리동사(substitutive)의 두 범주로 갈라서 기술하였다. 대동사란 선행 명사를 동사화하는 '하-'를 말하고 대리동사는 그 밖의 탄 품사를 동사화하는 '하-'를 가리킨다. '하-'는 동작성 명사나 비동작성 명사를 동사화하는 대동사구실을 한다. '공부'라는 비동작성 한자어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가 대동사화한다고 본다.



'공부'라는 선행어는 '공부를 공부(배우다)'와 같이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형식으로 타동사화되고 그것이 대동사 '하-'에 의하여 대체되는 변형을 거쳐 '공부하-'가 파생된다.

한편 '하-'가 대리동사가 되는 경우는 선행어가 명사 이외의 탄 품사일 때이다. 이를테면,

(25) ㄱ. 행복스럽기 행복스럽다. → ㄴ. 행복스럽기 하다. → ㄷ. 행복하다

이런 경우의 '하-'는 '행복스럽-'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명사만을 대신하는 동사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때는 대리동사라고 한다.


심재기(1976)는 '하-'를 동사화소의 한 가지로 보고 몇 가지 문법적 또는 어휘론적 특성을 분석 기술하였다.

1) 서술기능 대행소로서의 '하-' : 주로 [실체성] 선행어와 어울렸을 경우를 말한다. '밥하다, 나무하다' 따위에서의 '하-'는 일종의 관용화된 숙어의 형성과 관련된 기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런 경우에 '하-'는 서술기능 대행소가 된다. 이는 원래 서술어 기능을 보일 수 없는 실체성 명사 '밥, 나무'를 대신하여 서술적 기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2) 서술기능 완결소로서의 ‘하-’ : 비실체성 선행어와 결합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운동(을) 하다’와 같이 비실체성 명사 ‘운동’ 따위에 첨가된 ‘하-’는 일차적으로 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며, 2차적으로는 그에 선행한 형태소 ‘운동’이 지닌 의미를 그대로 복사 투영한다고 본다. 곧 이런 경우에 ‘하-’는 선행어의 의미에서 분리되어 의미적으로 아무 구실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선행어의 의미를 옮겨 와서 그 자체의 구문적 서술기능에 통합하여 서술적 기능을 완성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3) ‘하-’의 서술기능 이행소로서의 ‘하-’ : 상태동사, 감정동사 등과 관련된 경우이다. ‘예쁘다, 밋다’는 각기 ‘예뻐하다, 미워하다’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가 하는 구실이 서술이행 기능이다. 그것은 ‘하-’가 개입됨으로써 상태성 동사로 하여금 타동사적 서술어로 바뀌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의미론적 허구성 즉 구체적 동사의 의미를 내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통사적으로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특성을 지닌 파생접사라고 하였다.

성광수(1976)는 ‘뚫하다’와 ‘뚫이 한다’의 차이는 대동사 ‘하다’의 차이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다. 전자 ‘하다’는 상태동사를, 후자 ‘하다’는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라 하였다. 또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단일 동사로서의 ‘하-’와 복합동사로서의 ‘하-’ 류의 동사가 있다고 하였다.

- (26) 그분이 나무를 { a. 한다.
b. 끊어모은다.
c. 자른다.
d. 장만한다. }
- 

(26a)의 ‘나무를 한다’는 그 다음의 문장 (26 b,c,d)에서 해석한 것과 같은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실사적 동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의 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동사임을 확실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이창덕(1984)은 ‘하-’는 모든 경우에 대동사라고 기술하였다. 곧, ‘하-’는 모든 동사 대신 쓰일 수 있는 상위 개념의 어휘라고 하였다. 동작동사를 대신하는 ‘하-’는 ‘무엇(을)하-’와 같은 형식으로도 나타나며, 상태동사를 대신하는 ‘하-’는 ‘어떠하-’로 나타나는데 전자는 동작 대동사, 후자는 상태 대동사라고 부른다. ‘술을 한다’와 ‘행복하다’에서 전자의 ‘하-’는 동작 대동사, 후자의 ‘하-’는 상태 대동사이다. ‘하-’의 동작 대동사로서의 기능을 1) 실체성 명사가 선행할 경우와, 2) 비실체성 명사

가 선행할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의 경우에는 '하-'가 특정한 환경에서 이해되는 서술적 의미를 대신하는 대동사라고 한다. 술을 한다, 밥을 한다 따위에서 '한다'는 각기 '마신다', '깃는다'와 같은 구체적 의미의 동사를 대리하는 대동사이 이 분명하다. 2)의 경우 곧 비실체성 명사가 '하-'의 선행어로 올 경우에는 그 선행어가 지닌 동작성을 그대로 복사한 동사를 대신한다고 한다.

5) 본동사설

'하-'는 어느 경우나 본동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서는 '하-'의 본령은 타동사로서의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조미정(1987), 임홍빈(1979) 등이다. 이들 가운데는 세부적으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조미정(1987)은 문법동사 '하-'가 동사와 형용사의 두 범주에 걸쳐 문법소 기능을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동사와 형용사는 서로 구별되는 보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양자에 적용될 수 있는 문법기능소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사 '하-'는 행동성만을 나타내지만 '문법동사'로 보아야 하며 다음처럼 표시된다.

(27) 하: [V, ACTIVITY]

문법동사 '하-'는 동사의 하위부류이므로 다른 일반동사처럼 동사질의 핵자리에 나타날 수 있으며, 주제 역할을 부여하는 구실을 한다.

(28) ㄱ. 순애가 떡을 {하-ㄴ-다/ 먹는다}

ㄴ. 순애가 수일을 {불안하게/ 집에 가게} 하-였-다.

(28ㄱ)에서 구조적 지배관계에 있는 목적어에는 주제역을 그리고 주어에는 간접적으로 행동자의 역할을 부여한다. 사역문인 (28ㄴ)에서 '하-'는 다른 동사로 대치될 수 없으나 역시 동사질의 핵으로서 (28ㄱ)과 비슷하게 주제 역할을 결정한다. 따라서 '하-'를 의미있는 본동사로 볼 수 있다.

형용사와 '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동사 '하-'는 특수한 의미는 없지만 최소한 행동성을 지닌 동사인데 어떻게 형용사의 상태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동

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가? 형용사는 부정문 형성 등에서 동사와 다름을 보인다.

- (29) ㄱ. 순애가 바쁘지 아니-(*ㄴ)-다.
- ㄴ. 순애가 수일을 만나지 아니-하ㄴ-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일 ‘하-’에 다음과 같이 상태성 자질을 부여해 ‘하 : [V, STATIVITY]’와 같이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를 삽입하는 두 개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29)와 같이 부정문의 도출도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는 부정문에 관계하는 ‘하-’는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하-’는 (27)과 같은 문법동사로 보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29ㄱ)의 기저 구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된다.

(30) [N[NP[N순애]][AP[A바쁘]][NEG아니]][iNFL∅-다]

(30)에서처럼 부정요소 ‘아니’가 개입되면 원서술어(바쁘) 다음에 ‘지’가 도입될 때 동사에 ‘하-’가 통사 규칙으로 도입된다. 그런데 이런 ‘하-’의 도입은 ‘주제 역할’이 이미 결정된 다음에 이루어지므로 그것이 가진 동작성은 아무 구실을 하지 못한다. 곧, 이렇게 통사규칙으로 도입되는 ‘하-’는 그 동사성 자질이 중화된다고 본다.

임흥빈(1979)은 ‘-를’의 중출 현상 문제와 관련하여 ‘하-’에 관한 논술을 하였다.

1) 비실체성 명사 뒤의 ‘하-’가 모두 허형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공부를 하다’의 ‘하다’와 ‘공부하다’의 ‘하다’는 동일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자는 타동사성을 지니고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

2) ‘수학을 공부를 한다’의 ‘공부를’은 본래 ‘하다’와 분리 독립된 성분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다’란 구성에 {를, 을}이 끼어들었다고 본다. 곧 ‘공부를 한다’의 ‘하다’는 타동사성을 가지지만 그 앞의 탄 목적어가 올 때는 ‘공부하다’는 하나의 성분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결합 성분에 끼어드는 ‘를’은 대격조사가 아니고 특수 조사

와 같은 의미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주제화의 기능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6) 복합어 형성 요소설

‘하-’는 일종의 본동사로서 선행어와 복합어를 형성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본동사로서의 기능과 함께 복합어 형성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상복(1975), 김창섭(1981) 등이 속한다.

이상복(1975)은 ‘하-’는 자유형의 독립된 단어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종래 동일 형태의 ‘하-’를 어떤 때는 독립된 단어로, 또 다른 때는 접미사로 다루게 되므로 일관성 있는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 이런 ‘하-’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접미사처럼 쓰인 경우보다는 독립된 단어로 쓰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어느 경우나 독립된 단어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접미사처럼 배합된 ‘하-’의 경우는 합성어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하-’는 ‘다했니?’에서는 본동사, ‘와야 한다’에는 보조동사, ‘오겠느냐고 했다’에서는 대용어로 쓰이는데 이때는 독립된 단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하-’는 선행어와 결합하여 동사처럼 쓰이는 일이 많은데 이 때는 ‘하-’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공부하다’ 따위는 합성어로 여겨질 수 없으나 ‘폐하다, 감하다’ 따위는 하나의 단어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하-’를 종래처럼 접미사로 볼 것이 아니라 합성어를 이루는 것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는 설명이 된다고 본다.

‘하-’선행어와 결합하여 ‘가난하다’와 같은 상태동사(형용사)로 여겨지는 경우, 부사성 선행어와 결합하여 ‘출렁출렁한다’와 같은 동사를 이루는 일도 있다. 이런 ‘하-’의 의미는 다른 동사와는 달리 매우 추상적이며, 포괄적이어서 구문상에서의 분포 관계에 의해서만 그 구체적인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양면성 곧 ‘동작’과 ‘상태’이다. 결국 ‘하-’는 독립된 자유형 단어이며, 그 의미에 의해서 다시 동작을 나타내는 것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뉜다. 다만, ‘하-’가 선행어와 잘 분리되지 않을 때는 ‘하-’합성어로 처리된다.

김창섭(1981)은 ‘크기는 하다’나 ‘씩씩하기야 하다’와 같은 경우의 ‘하-’는 대동사(또는 형식동사)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귀중하다’나 ‘비슷하다’와 같이 <어근+동사>의 구조일 경우는 복합동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한편, ‘공부’와 같은 명사도 문맥에 따라 ‘하-’의 목적어 구실도 하고 일종의 어근

으로서 '하-'와 복합어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본다. '공부를 한다' 따위에서는 '공부'는 목적어이나 '수학을 공부한다'와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통사 행위를 하는 자격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수학'과 같은 목적어가 따로 개입될 경우에는 대개 '공부'는 독립된 명사라기보다는 한 어근으로 여겨지며, '하-'와 복합어를 형성한다고 본다.

7) 포괄동사설

'하-'는 대동사의 차원을 넘어선 포괄적 대리 기능을 보인다. 곧 '하-'는 상위문의 동사로서 하위문장 등을 포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영희(1981)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김영희는 간접명사 보문법에 나타나는 '하-'의 의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하-'는 포괄적이나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간접명사 보문법에 나타나는 '하-'는 형식동사가 아니라 '단언([ASSERTIVE])' 서술어와 내포동사의 이중적 의미 기능을 가진 동사라는 것이다.

- (31) ㄱ. 경찰이 죄수가 탈주했다고 사실을 밝혔다.
- ㄴ. 경찰이 죄수가 탈주한 사실을 밝혔다.
- ㄷ. 경찰이 죄수가 탈주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 (31)의 각 문장이 동의성이 인정된다면 '하-'는 물론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동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까닭은 '하-'에 실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 (32) 이 책값이 {만원입니다, 만원됩니다, 만원합니다.}

(32)에서 알 수 있듯 '하-'가 전형적인 내포동사 '이-', '되-'와 함께 내포동사라고 하였다. '하-'가 내포동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간접명사 보문과 선행사의 의미론적 관계, 곧 내포관계를 풀이하는 동사라고 정의하였다.

김영희는 대동사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용어(pro-form)'는 대치기능과 지시기능을 가지는데 '하-'는 일부 대치기능은 보이나 지시기능은 드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하-'는 온전한 대용어, 곧 대

동사로 볼 수 없고 다만 어휘론적 계층구조상의 상위어인 포괄동사(generic verb)가 된다고 본다.

(33) 함께 저녁을 {먹읍시다, 합시다, ?그릅시다.}

(33)에서 '합시다'가 '먹읍시다'를 대치하나 그것이 '그릅시다'로 대치되지 못하는 것은 '하-'가 일반 대동사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일반 대동사는 '그러하다, 이러하다' 따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동사로 알려진 '하-'는 다음과 같이 상위문의 포괄동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34) 부인이 밥을 { a. 한다
b. 짓는다
c. 짓기를 한다. }

(34a)는 표면상 단문구조이지만, (34b, c)와 동의적인 것으로 보아 그 기저구조는 복문 구조이다. 따라서 '하-'는 상위문의 동사로서 내포문 전체를 포괄하는 구실을 한다고 본다. 다만 '하-'가 일부 대동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하-'가 의사대동사로 풀이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3. '하다'의 이원적 기능

'하-'가 통사상에서 동사적으로 어떤 요소들과 관계를 맺고 쓰이며, 또 그들과 합성하는지, 국어의 기본 문형 중에서 동작동사와 상태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기본 문형을 대용형으로 바꾸어 써 보고 생각해 보자.

(35) 무엇이 무엇을 어찌 한다.

(36) 무엇이 어떠하다.

(35)은 동작 대동사 '하-'가 들어간 문장이고, (36)는 상태대동사 '하-'가 들어간

문장이다. (35)에서 목적어 '무엇(을)'과 부사어 '어찌'는 서로 위치를 맞바꿀 수 있다.

(35)' 무엇이 어찌 무엇을 한다.

(35)과 (35)'에서 동작 대동사 '하-'의 직접 선행 요소로 올 수 있는 것은 목적어 '무엇(을)'과 부사어 '어찌'이다. 이것들이 '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와 하나의 성분으로 합성이 되기도 한다. 역으로, 목적어 '무엇(을)'과 부사어 '어찌' 뒤에 쓰인 '하-'는 분리성이 있고 동작 대동사로 기능을 하게 된다.

(36)에서 상대 대동사 '하-'의 직접 선행 요소로 오는 것은 '어떠' 하나 뿐이고 '어떠+하고'가 하나의 성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동작 대동사의 경우와 달리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종래에는 이 비분리성 때문에 '하-'를 파생접미사로 처리했으나 다음을 보면 이 때의 '하-'도 대동사임을 알 수 있다.

(37) ㄱ. 행복하기는 행복하다.

ㄴ. 행복하기는 하다.

(38) ㄱ. 행복하다.

ㄴ. 행복은 하다만 보람이 없다.

(37ㄴ)의 '하다'는 (37ㄱ)의 '행복하다'를 대리함을 알 수 있고, (38ㄱ)의 '행복하다'는 (38ㄴ)과 같이 쓰일 때는 분리할 수 있으므로 (36)의 '어떠하다'의 '하-'도 대동사로 처리할 수 있다.

하치근(1989)은 접미사가 갖추어야 할 적격 조건으로 ① 특정한 통어범주에 속하는 뿌리에만 붙어야 하고, ② 특정한 통어범주에 속하는 낱말만을 파생해야 하고, ③ 접미사가 가진 자질이 뿌리에 스며드는 자질 스며들기 작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하다'는 '빨래하다, 나무하다, 밥하다'에서만 실질적인 풀이씨이고 나머지 모든 'x+하다' 유형에서는 형식적 풀이씨에 불과할 뿐 결코 파생접미사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다' 동사의 '하-'는 기원적으로 동사어간으로서 기능하나 그 어휘의미의 포괄성으로 인해 파생접미사로까지 기능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며, 이 동사 어간과 파생접미사 사이에는 중간범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 (39) 가. 철수는 밥먹고 산책하는 일이 힘들었다.
 나. 요사이 그는 등산을 매우 자주 하는 편이다.
 다. 여자도 하는데 남자가 못 하겠느냐.
 라. 돈이라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된다.
 마. 그 풀은 약으로 쓰기도 한다.
 바. 그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사. 저 장미는 예쁘기도 하구나.
 오. 군인은 용감해야 한다.
 자. 사랑하는 사원 여러분!
 차. 씩씩한 어린이가 공부도 잘한다.
 카. 잠든 체하는 지 아가씨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의 예문들의 (39가,나)은 타동사, (39다,라)은 자동사 (39오,바)은 조동사, (39사,오)은 보조형용사로 파악하지만 (39자)을 파생접미사로 보는 것과는 달리 (39자,카)은 동사로 보아 '사랑하는'과 '체하는'은 복합어로 볼 수 있다. (39나,가)에서 (39오)까지는 '하다'가 독립된 성분으로서 선행 요소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39자,차,카)에서 '하다'는 선행 요소와 긴밀한 형태론적 결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39자)의 '하-'는 소위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 '-답-', '-롭-' 등과 그 분포적 특성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40) 가. 나는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젊은이가 되자.
 라. 그에게서는 과연 장군다운 품모가 풍겼다.

(40나,다,라)처럼 (40가)도 '하-'가 선행어기에 긴밀히 결합되어 하나의 단어처럼 행동하는 '조용한'을 관형사형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조용한'의 '하-'를 '-스럽-', '-답-', '-롭-'과 동렬에 놓이는 파생접미사로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의 '하-'는 (39가~오)에서 보인 '하-'의 의미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동사로서의 '하-'의 위치에서부터 파생접미사로서의 '하-'의 위치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하-'의 포괄적이면서도 뚜렷하지 않은 어휘의미 때문에 '하-'는 의미 기능보다는 통사기능을 더 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41) 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느한다.
 나. 복지국가를 의욕하자.
 다. 그 일에 우리 모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라. 그 신혼부부는 매우 행복하다.
 마. 경찰을 비롯하여 검찰 수뇌부까지 책임이 있다.
 바. 깨끗한 물이 건강을 지켜준다.
 사. 그 책은 나에게 매우 귀중한 재산이다.

(41)에서 밑줄 친 말들은 어느 것이나 문장 안에서 하나의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문장성분이 되고 있다. (41 가, 나)은 '하'의 선행 요소가 비상태성 어근이고 (41 다, 라)은 명사이며, 나머지는 모두 상태성 어근이다. 즉 여기서의 '하'는 선행어기에 결합하여 일종의 파생어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다'는 기원적으로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동사로서의 특성은 어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포괄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파생접미사로서의 기능도 점차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 어간의 '하-'와 접미사로서의 '하-'는 '하-'의 이원적 기능이 모두 나타나는 중간 범주의 영역이라 하겠다.⁷⁾ 즉, 어휘적 요소인 본동사의 기능과 문법소인 접사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7) 정원수, 「'x+하-' 유형의 어형성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6 (언어연구회, 1989), p.293.

Ⅲ. 제주도방언에서의 ‘ㅎ다’

‘하다’가 형성하는 동사구절은 편의상 ‘단순’과 ‘복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순 동사구절이란 ‘하다’가 표면구조에서 동사 이외의 선행 요소와 직접 결합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종래의 문법에서 ‘하다’가 전성접미사로서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 동사를 형성한다고 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사랑한다, 상냥하다, 흔들흔들한다”등이 그 보기이다. 복합 동사구절이란 ‘하다’가 선행 동사류와 어울려서 복합구절을 이루는 경우이다. 종래에 ‘하다’가 선행 동사류 또는 문장과 어울려서 보조동사로서 주동사와 어울린다고 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인용문, 사동법, 부정법 등을 이루는 ‘하다’의 쓰임이 그 보기가 된다.⁸⁾ 두가지를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여기서는 전자에 국한하여 ‘하다’의 쓰임을 살펴보겠다.

제주도 방언에서 ‘ㅎ다’는 표준어에서와 같이 명사, 부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동사적 기능을 갖게 한다. ‘명사+ㅎ다’의 결합은 ‘목적어+ㅎ다’의 형태에서 목적격 표지의 생략으로 이뤄지고 ‘부사+ㅎ다’는 ‘동작성부사+ㅎ다’, ‘상태성 부사+ㅎ다’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형용사 +ㅎ다’에서는 특히 빛깔형용사와 결합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하는데 이는 표준어에서는 볼 수 없는 제주도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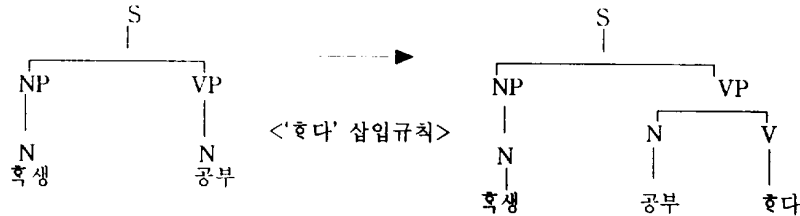
1. 명사+ㅎ다

선행 요소와 관련된 여러 동작을 일일이 특정의 동사를 써서 말하는 대신에 ‘ㅎ다’라는 상위개념의 포괄적 동사를 씌으로써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해석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특정 의미를 갖지 않고 포괄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단점이 됨과 동시에 이 경우에는 장점이 된다.

8) 서정수,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1975), p.11.

아래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부'라는 명사에 '하다'가 삽입되어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진다. 이는 대부분의 실체성 명사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하다'의 동작성으로 인하여 명사가 동사화된다.

(1) 학생이 공부를 한다.



또한 선행 목적으로 비동작성 실체성 명사가 '하다'의 선행 요소로 왔을 때 '하다'는 선행 요소로부터 서술기능의 도움없이 특정 동사를 대리한다.

(2)ㄱ. 그 사람은 술을 한다.

- ㄴ. 어명이 밥을 한다.
- ㄷ. 그 사람은 담배를 한다.
- ㄹ. 미희네는 떡을 한다.

(3)ㄱ. 그 사람은 술을 마신다.

- ㄴ. 어명이 밥을 짓는다.
- ㄷ.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운다.
- ㄹ. 미희네는 떡을 뭉는다.

(2)에서 '하다'는 분명히 (3)의 구체적 의미의 동사를 대리하는 대동사임을 알 수 있다. 앞의 선행 요소가 동작성이 없으므로 '하다'가 특정 동작동사 대신에 동작의 미 기능을 대신함을 알 수 있다.

(2)'ㄱ. 그 사람이 술.

- ㄴ. 어명이 밥.
- ㄷ. 그 사람은 담배.
- ㄹ. 미희네는 떡.

‘하다’가 의미없는 동사의 형식만 갖는 형식요소라면 (2)’에서 (3)의 문장이 쉽게 제구성되어야 할텐데 (2)’에서는 전혀 (3)와 같은 의미의 문장이 짐작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되어 의미 해석에 혼란이 생긴다.

예를 들면 (2ㄱ)은 ‘술을 마신다’ 뿐만 아니라 ‘술을 판다’, ‘술을 좋아한다’ 등으로 이해될 수 있어 (2ㄱ)의 ‘술을 한다’의 의미와는 같아질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2)의 ‘하다’는 특정 의미의 동사를 대리하는 대동사임이 분명하다. ‘하다’는 선행 요소에 따라서는 특정한 하나의 동사뿐만 아니라 선행 요소와 관련된 여러 동작을 대리하기도 한다.

- (4) ㄱ. 철이가 남을 한다. (자른다, 끊어모은다, 장만한다 등)
- ㄴ. 미희가 머리를 한다. (고대한다, 파마한다, 손질한다 등)
- ㄷ. 그 사람은 문학을 한다. (전공한다, 연구한다, 쓴다 등)
- ㄹ. 그들은 한바탕 한다. (놀았다, 싸웠다, 어울렸다 등)

예문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체성 명사와 ‘하다’의 결합에서 대동사 ‘하다’가 지시하는 의미는 선행명사에 따라 규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회적·언어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2)에서 ‘술을 하다’는 ‘술을 마신다’로 해석되지만 ‘밥을 하다’는 ‘밥을 먹다’가 아니라 ‘밥을 짓다’로 해석된다. 똑같은 명사와 대동사가 어울린다 해도 언어 사회적·언어 문화적 차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느 언어 사회에서는 어울림이 가능한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그 반대 현상도 생기게 된다.

사회·문화적 여건이 바뀌면 불가능하던 것들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 (5) ㄱ. 머리를 한다.
- ㄴ. 돌을 한다.

(5ㄱ)에서 ‘머리’는 대동사 ‘하다’와 결합될 수 없었으나, 현대에 와서 ‘파마머리, 고대머리’ 등이 생기면서 ‘파마하다, 고대하다’의 뜻으로 ‘머리를 하다’가 쓰이게 되었으며, (5ㄴ)은 쓰일 수 없는 말이었으나 수석을 채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돌을 채집하다’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동작성이 없는 실체성 명사와 ‘하다’의 결합은 선행 명사가 특정 동작 의미를 ‘하

다'에 직접 부여할 수 없으므로 제한적이고, 'ㅎ다'가 나타내는 의미 또한 언어사회적 관용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⁹⁾

제주도 방언에 나타난 '명사+ㅎ다'의 예를 더 살펴보자.

(6) 드르에 나륙이 이그난 ㄱ슬ㅎ여사큰게.

(들판에 벼가 익으니 거두어 들여야겠다.)

자인 간세ㅎ얼 아무일도 못한다.

(저 아이는 게을러서 아무 일도 못한다.)

늑신네들 오몽 못ㅎ민 그저 집의서 손지덜이나 거념ㅎ곡.

(늑은이들 움직이지 못하면 그저 집에서 손자들이나 돌보고.)

한라산에 간보난 아들 아긴 장기두곡 딸아긴 노념ㅎ서라.

(한라산에 가보니 아들이긴 장기 두고 딸 아긴 놀이하고 있더라.)

저눔을 심영 답달ㅎ서.

(저눔을 잡아서 심문하십시오)

내가 아버지디 쥐 들고 살았다고 악살ㅎ고 야단치니 개가 꼬리치고 옳다고.

(내가 아버지인데 쥐를 데리고 살았다고 악살하고 야단치니, 개가 꼬리치고 옳다고.)

흔 새로 세시쫼 시간은 웨니 옹옹 장석ㅎ명 ㅎ여 가난.

(한 새로 세시쫼 시간이 되니 옹옹 장석하면서 하여 가니.)

입이 여우 입 모양으로 꺼지락하게 생긴 사름 시니 그걸 여우라고 심어난 복작 태작ㅎ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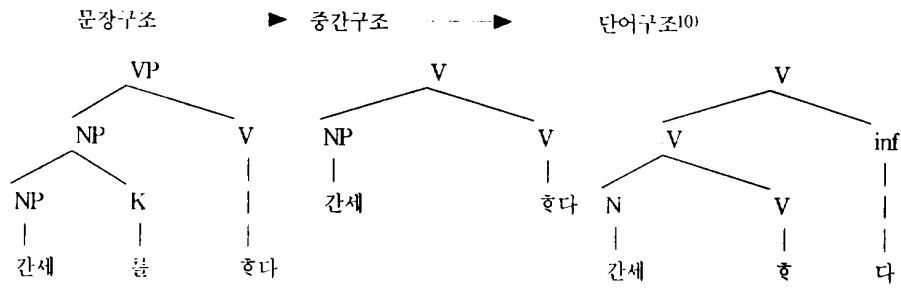
(입이 여우 입모양으로 꺼지락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여우라고 붙잡아 놓아서 마구 쳐 두드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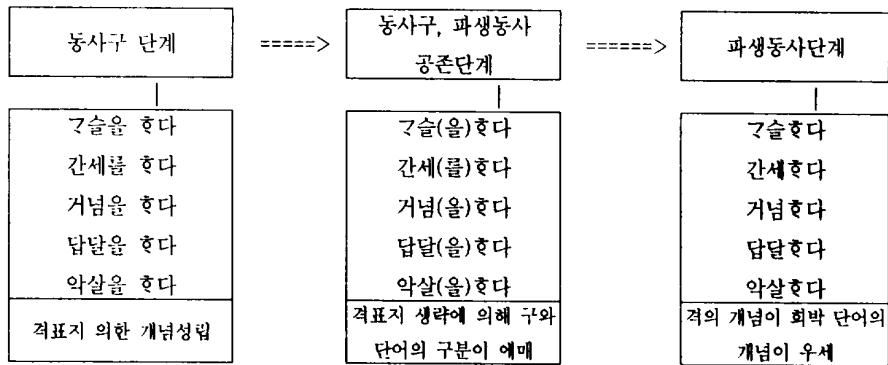
(6)에서 밑줄 친 “ㄱ슬ㅎ다, 간세ㅎ다, 거념ㅎ다, 노념ㅎ다, 답달ㅎ다, 악살ㅎ다, 장석ㅎ다, 태작ㅎ다”는 모두 ‘명사+ㅎ다’로 분석된다. ‘ㄱ슬, 간세, 거념, 노념, 답달, 악살, 장석, 태작’등은 명사로의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에 ‘ㅎ다’ 삽입규칙이 적용되어 동사화하였다.

‘ㅎ다’를 첨가하여 명사가 동사화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하여 보았다.

9) 이창덕, 『동사 ‘하-’의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pp.21~25.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다'는 원래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인 데 목적격표지의 생략으로 동사구와 복합동사의 공존 관계를 거쳐 파생동사화한다.

- (7) ㄱ. 가인 너미 간세를 한다. /가인 간세를 너미 한다.
 ㄴ. 가인 너미 간세(를) 한다. / 가인 간세(를) 너미 한다.
 ㄷ. 가인 너미 간세한다. / 가인 간세 너미한다.

(7)에서 '목적어+하다'의 형식 앞에서는 부사가 쓰이는 것이 가능하며 또 목적어와 부사의 위치를 바꾸어도 된다. (7ㄴ)은 2단계로 목적격 표지가 생략된 형태로 보는 것이다. (7ㄷ)은 완전한 파생동사화된 상태로 목적어와 '하다' 사이에 부사가

10) 정원수, 「'x+하-' 유형의 어형성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6 (언어연구회, 1989), p.15.

첨가되는 형인데 이때는 ‘하다’가 명사가 아닌 부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와 ‘부사+하다’의 형식으로 처음과 다른 구조를 갖게 된다.

외국어 동사는 그 자체가 명사로도 쓰이는 것이 많지만 동사로만 쓰이는 것도 국어에서는 직접동사 어간으로 쓰일 수 없고 명사로만 인식된다. 따라서 외국어 동사는 국어에서는 동작성 명사로 처리되어야 한다.

- (8) 가. push 하다.
나. *밀(다)하다.
다. 밀기하다.
르. 밀기 밀다.
- (9) 가. 단절하다.
나. *자르(다)하다.
다. 자르기 하다.
르. 자르기 자르다.

(8)은 영어의 동사, (9)는 한자어의 동사가 ‘하-’의 선행 요소로 쓰인 경우인데, 이들은 국어에서 직접 동사로 쓰일 수 없으며, ‘하-’와 결합할 때도 동사가 아님은 (8나), (9나)이 문장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외국어 동사는 국어에서 항상 명사로 인식되고 따라서 동작성 명사와 같이 ‘하-’의 선행 요소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 때의 ‘하-’도 동작성 선행 명사의 동작성을 그대로 복사한 동사의 동작의미 중복 때문에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가)은 (8다), (9가)은 (9다)의 의미이고, (8다)의 ‘하다’는 (8르)의 ‘밀다’의 대체이고 (9다)의 ‘하다’는 (9르)의 ‘자르다’의 대체이므로 (8가)의 ‘하-’와 (9가)의 ‘하-’는 선행 요소 ‘push’, ‘절단’으로부터 동작 의미를 그대로 부여받은 대동사로 다루어질 수 있다. 다음은 본래는 분명히 동사인 단음절 한자어가 ‘하다’와 결합된 경우들이다.

- (10) 과하다, 너하다, 데하다(대하다), 망하다, 반하다(반을 놓다), 벤하다(변하다), 벨하다(별하다), 분하다(분하다), 실하다, 약하다(: 병이나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약을 쓰다), 욱하다(욕하다), 칠하다.

‘하다’ 앞에 사용된 한자어 단음절 동사도 국어에서 그대로 동사로 쓰이지 않고 명사로 인식되므로, 이 때의 ‘하다’도 선행 요소인 동작성 명사로부터 동작 의미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다'와 전혀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음절 한자어 동사도 혼자서 국어의 명사로 자주 쓰이지 않을 뿐이지 다음을 보면 분리될 바탕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ㄱ. 급히 구(求)하다.
- ㄴ. 급구(急求)를 하다.

(11ㄱ)에서 '구하다' 자체로서는 '구를 하다'로 전혀 분리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앞에 '급히'와 같은 부사가 오면 '구(求)'가 '하다'와 따로 분리되어서 '급구(急求)'라는 명사로 되므로 '구하다'는 심층적으로 한자어 동작성 명사 '구(求)'와 대동사 '하다'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한자어 동사 이외에 국어 동사에서 '하다'의 선행 요소로 쓰이는 경우를 보면 동사 어간이 아니라 독립된 명사나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 (12) ㄱ. 생각하다, 이룩하다, 삼가하다, 비릇하다.
- ㄴ. 생각다, 이룩다, 삼가다, 비릇다.
- ㄷ. 생각을 하다, 이룩을 하다, 삼가를 하다, 비릇을 하다.

위의 (12ㄱ)의 '하다'의 선행 요소 '생각, 이룩, 삼가, 비릇'은 (12ㄴ)의 동사의 어간들이다. 그러나 이는 (12ㄷ)에서 보듯이 동사의 어간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명사로도 쓰이는 것들이므로 (12ㄱ)의 '생각, 이룩, 삼가, 비릇'은 동작성 명사로 보고 이때의 '하다'를 동작성 명사로부터 동작의미를 완전히 복사받은 대동사로 처리할 수 있다.

종래에 '체하다, 척하다, 양하다' 등은 하나의 명사로서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체, 척, 양'이 독립된 명사로 기능하지 못하고 항상 'ㅎ-'와 어울려 쓰이므로 '체ㅎ-, 척ㅎ-, 양ㅎ-'로 생각하기 쉽지만 '체, 척, 양'은 'ㅎ-'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들을 꾸미는 선행하는 관형어에 의존하는 의존명사들이다.

- (13) 도와주는 체(척, 양)하다.

(13)의 '체(척, 양)'은 동작성 의존명사 '짓, 노릇' 등과 같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나, 앞에 선행하는 요소가 항상 관형형이므로 명사임에 분명하고, 선행한 관형구절로부터 동작성의 도움을 받는, 동작성을 가지고 있는 의존명사로서 'ㅎ-'와는 쉽게 분리될 수 있다.

'체(적, 양)하다'는 'ㅎ-'는 '일부러 만든다', '일부러 꾸민다'등 '거짓,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대리한다. 이들 동작성 명사 뒤에 쓰이는 'ㅎ-'는 그 명사의 동작성을 그대로 복사한 동사를 대리하므로 '서술기능 복사 대행'의 기능을 갖는다. 'ㅎ-'가 특정 동작의미를 선행소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사받게 되므로 동작성 명사와 'ㅎ-'는 결합이 용이하고 동작성이 없는 실체성 명사와 결합되었을 때보다 관계도 긴밀하다. 국어 사전에 동사로 실려 있는 '선행소+ㅎ-'형 어휘 중 대부분이 '동작성 명사+ㅎ-'로 이루어진 것들이다.11)

중세국어에도 '명사+하다'의 결합을 통하여 동사를 이루는 예는 많이 보인다.

노릇하다: 노·르·셋 바오리실씨(龍 44)

東岳陽에 노·롯·ㅎ·던 이를 스랑호노라=憶戴東岳陽(杜 25:5)

구실하다: 구시를 조차 다시 예 디나오미 어렵도다.=從公難重過(杜 14: 33)

나 구·실·ㅎ·며 隱處호미 제여곰 天機니라=出處各天機(杜 15:5)

나를 구실호 노라 이셔=我烏官在(杜 9:27)

외(謬)하다: 모던 외를 (龍 31)/ 鵬鳥 | 외호야 =鵬圖(杜 20:40)

공스(公事)하다: 더 ㅈ이 그 사롬드려 무려 지문 罪며 福이며 해여 공·스·호리니(釋 9:30)

ㄱ롬(代身)하다: 주곤 後에 報 | 이셔 허근 터럭만 호야도 受호느니 父子至親이이 길히 各別호며 비록 서르 맛나도 ㄱ롬매 受코져 호리 업스니(月印 21:78)

말(語)하다: |ㅅ下 | :말 아니드러(龍 98)/ 角端이 :말·호야·늘(龍 42)

벌(朋)하다: 두:버:디(龍 90)

나그네 버리 호갓 使星을 :벌·호니=客星空伴使(杜 20:46)

스랑(愛, 思)하다: 스랑을 믹갓던던=結愛(杜 20:29)

어버시 了息 스랑호몬 아니한 스시 어니와(釋 6:3)

싱각하다: 상네 스승의 ㄱ롬초물 ·싱·각·호·야(月印 7:45)

조심하다: 들써버: 조심 아니호다가(釋 9: 37)

精舍는 :조심·호는 지비라(月印 1: 6)

풍류하다: 樂은 풍:휘:니(釋 31:9) 태는 풍류홀씨라(月印 2:17)

ㄹ(邊)하다: 無邊은 :ㄹ 업슬시라(月印 8:39)

11) 이창덕, 『동사'하-'의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pp.27~31.

雪嶺은 하늘홀 :又·하야 히오=雪嶺界天白(杜 7:10)

장석(瘖)하다: 어러본이리 님 時節에 한 사르미 장석호논 難이어나(釋 9:33)

고마하다: 부테 마조 나아 마즈샤 서르 고마하야 드르샤 說法하시니(釋 6: 12)

흔더(同處)하다: 부테 …갈근 比丘 八千人과 흔더 잇더시니(釋 9:1)

시름하다: 나는 이제 시르미 기피 (月印 2:5)/ 시름하야 한숨디는 소리(釋 19:14)

간난하다: 권량입슨 艱難이 아니라(釋 13:56-7)/ 艱難하니 가슴며니=貧富(金剛5)

구경하다: 天官을 구·경·케하시니(月印 7:11)

‘하다’가 결합하여 명사를 동사화하는 것으로 그 예는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다수가 있다.

‘명사+하다’의 단어 형성은 중세 이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형성법으로 다양한 명사와 결합되고 있다. ‘명사+하다’의 결합은 표준어나 제주도 방언 중세국어에서 차이점을 볼 수 없다. 동사 ‘하다’와 명사의 결합은 가장 일반적인 결합 방법이며 또 넓은 범위에 걸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부사+하다

부사 중에서 의성·의태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이는 일반 부사들과의 결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부사+하다’를 하나의 단어로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빨래를 자주 한다’와 ‘자주 빨래한다’의 문장에서 ‘자주 하다’가 ‘부사+동사’라고 분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며 부사의 동사화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성·의태어의 경우에는 ‘하다’와의 결합으로 동사화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의성·의태어 중에는 동작성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1) 동작성 부사 +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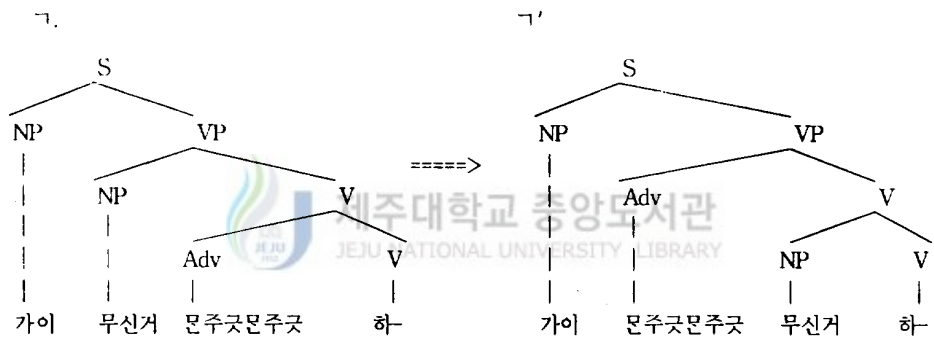
부사에 ‘하다’ 삽입규칙이 적용되면 명사와 결합할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격표지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으며 결합이 긴밀하여져도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부사의 비굴절적 성격에 기인한다.

- (14)*뺨이 반짝반짝을 한다.
 *눈을 깜빡깜빡을 한다.

(14)와 같이 부사에 격표지가 들어가는 문장은 비문이 된다. 명사와 결합할 때는 목적격 표지가 생략되어 '명사+하다'를 하나의 동사로 분석하였는데 부사의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결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휴지가 들어간 '반짝반짝 #하다'와 '반짝반짝하다'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부사와 '하다'사이의 결합관계가 긴밀함을 의미한다.

목적어 '무엇'과 같이 부사어 '어찌'도 동사 '하다'의 선행 요소로 가능하다. 이는 독립성을 갖는 명사와 부사가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성을 나타내게 됨을 말한다.

- (15) ㄱ. 가인 무신겨 몬주긋몬주긋호염시니.
 ㄱ' 가인 몬주긋몬주긋 무신겨 호염시니.
 ㄴ. 가인 셤 멜룩멜룩호다.
 ㄴ'*가인 멜룩멜룩 셤 호다.



(15)에서 '몬주긋몬주긋'은 '하다'와 결합이 가능하나 부사와 위치를 달리하면 위와 같이 그 구조를 달리한다. (15ㄱ)의 '몬주긋몬주긋'은 '부사+하다'로 쓰인 것이고 (15ㄱ')의 '몬주긋몬주긋'은 부사 단독으로 쓰인 것이다. (15ㄱ)의 의미가 (15ㄱ')와 같이 위치가 바뀌면 그 의미도 달라진다. 같은 방법으로 (15ㄴ)의 문장을 보면 부사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꾼 (15ㄴ')는 비문이 된다.

- (16) ㄱ. 문이 흔들흔들 호염져.(움직인다)

- ㄴ. 구두가 반짝반짝 흐다.(빛난다)
- ㄷ. 뉘런 증얼증얼 헛져.(소리낸다, 말한다)
- ㄹ. 사름덜이 훌쩍훌쩍 흐엇져.(울었다, 소리냈다)

(16)에서 ‘흐다’는 동작성을 띤 선행부사에 동사 ‘흐다’가 결합하여 동사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흐다’가 선행부사가 포함한 동작의미를 그대로 복사해서 지니고 있음은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 (17) ㄱ. 흔들흔들 흐다.
 ㄴ. 흔들 흐다.
 ㄷ. 흔들거리다.

(17ㄱ, ㄴ)의 ‘흐다’는 앞의 부사 ‘흔들흔들’ ‘흔들’을 그대로 복사하므로 (17ㄱ)은 반복의미를 지니고 (17ㄴ)은 일회성 동작의미를 갖게 된다. 반면 (17ㄷ)은 ‘흔들’이지만 반복의미를 나타낸다.

- (18) 바당우의 태왁 하나가 공끌공끌흐염서라.
 (바다 위에 태왁 하나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더라.)
 가인 호끔호민 눈 끄막끄막흐다.
 (그 아인 조금만 하면 눈을 깜박깜박한다.)
 시아방은 구제기꺾찌 뇌만 섬삭섬삭흐고.
 (시아버지는 소라 같이 이만 성깃성깃 하고.)
 배긴 개가 웅공공흐곡 튼은 독이 고꼬옥흐곡.
 (벗긴 개가 멍멍 짖고 뜯은 닭이 고꼬옥하고.)

‘공끌공끌, 끄막끄막, 섬삭섬삭, 고꼬옥’ 등의 동작성 부사가 동사 ‘흐다’와 결합하여 동사화하고 있다. ‘흐다’와 결합하는 선행 요소들은 ‘흐다’와 결합하기 전에 독립된 부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흐다’와 결합하면 동작동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2) 상태성 부사+ 흐다

상태성 부사에 ‘흐다’가 결합하여 동사성을 갖는다. 이는 선행 부사가 동작성

을 갖고 있지 않으나 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빛깔형용사의 경우와 일치한다.
'흐다'에 영향을 입어 상태성이 동작성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19) 가. 거칠거칠흐다.

나. 미끈미끈흐다.

(20) 가. 거칠거칠 거칠다.

나. 미끈미끈 미끄럽다.

(19)에서 '흐다'는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부사의 내용을 의미한다. 상태성어근 '어떠' 뒤에 쓰이는 '흐다'는 선행 요소의 상태성에 동작성을 갖게 한다. (19)의 '흐다'는 앞의 선행 부사가 지닌 상태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동사성이 가미된 상태이다.

제주도 방언에 나타난 '상태성 부사+흐다'형태의 예를 보자.

(21) 거 종이만 흔 장 도망갓주며, 거렁청하게.

(그것 종이만 한 장 없어졌지 뭐, 거렁청하게.)

고단고단하게 다 준다.

(차근차근하게 다 말한다.)

뱀이 과람과람하면 바끄디 못 나가키여.

(뱀이 쩡쩡 내리뒹어 밖에 못나가겠다.)

테우리 이놈이 잇단 으쌩하게 말허엿어.

(꼭자 이 놈이 잇다가 태연자약하게 말했어.)

십보리왓디 들어난 췌광 지집년 방에 들어난 놈은 혼번 가나민 주으룻흐다.

(십보리밭에 들어갔던 소와 계집 방에 들어갔던 놈은 한 번 가고 나면 술깃한다.)

성냥곽에 성냥개비가 지깅흐다.

(성냥상자에 성냥개비가 가득 들어박혀 뽕뽕하다.)

어디서 쿠시룻흔 내 남저.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난다.)

얼굴만 돈돈이 보렘만 흐고 그자 편두룻흐엿어.

(얼굴만 단단히 바라보기만 하고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하였다.)

아이덜은 편직히여 있어 또꼬냥엔 나팔이 꽃허전 있어서.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 똥구멍엔 나팔이 꽃혀져 있어.)

그 개가 여시 수컷, 버영그랑흔 거 바싹 물어 죽여불언.

(그 개가 여우 수컷, 버영그랑한 것 바싹 물어 죽여 "렸어.)

무슨 베지근흔 내 마치니 스방 개덜이 와가지고 음상음상 땡길 판이라.
 (무슨 비지근한 냄새 맡으니 사방 개들이 와서 어수선하게 다닐 판이라.)
 큰 마통이 마 파난디 가보난 머 진 개똥만 빌락흔 것이 아무것도 엇고.
 (큰 마통이 마를 췌던 곳에 가보니 똥진 개똥만 빌락한 것이 아무 것도없고.)
 산도채빈 완전히 사람으로 베는디 늑빨이영 엉글어서 상삭흔다 흔여.
 (산도채비는 완전히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빨이 이렇게 어그러져 상삭한다고해.)
짚속흔 움탕흔 골랭이에서 불이 배롱하고 비두웨를 흔는다.
 (짚속하고 움푹한 골짜기에서 불이 배롱하고 비두웨를 하는데.)
 얼굴만 둔둔이 브램만 흔고 그자 핀두룽 흔엿어.
 (얼굴만 단단히 바라보기만 하고 그저 어리둥절하였다.)
 아이덜은 핀직 흔여 있어 또꼬냥엔 나팔이 꽃혀전 있어서.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 똥구멍엔 나팔이 꽃혀져 있어.)
 이 사람은 히여 뜯흔 놈은 아무나 들여 놓질 안흔 주지게.
 (이 사람은 히여뜯한 놈은 아무나 들여놓지 안 하지.)

‘거령청, 고단고단, 과랑과랑, 들썩들썩, 으썩, 주으룻, 지각,……’등의 상태성 부사가 ‘하다’동사와 결합되는 예이다.

구조상 동작성 부사와 다른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상태성부사+하다’가 상태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작성을 갖는 것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지속상 형태소 ‘-암시/엄시-’가 결합이 가능함을 예로 들 수 있다. 형용사에는 결합될 수 없는 지속상 형태소가 붙어 ‘거령청^하엄저, 과랑과랑^하엄저’ 등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하다’가 앞의 선행요소의 성질을 그대로 복사하기 보다는 동작성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부사와 ‘하다’의 결합되는 예를 보자.

- ㄹ독^하다(滿) : 歡呼之聲이 道^上에 ㄹ독^하니(龍 41)
 虛空蓮花座에 無量化佛 世界에 ㄹ독^하거시닐 (月印 7:52)
- ㄹ몬^하다(조용하다): 더 나라해 ㄹ몬^하흔브르미 行樹羅綱을 불면(月印 7:67)
- 구죽(구죽)하^다(중): 그죽흔 石壁= 鍊壁(杜 6:47)
- 구죽구죽^하야 핏뚱 내는 몰삿기 곤도다= 僞儻汗血駒(杜 22:45)
- 답답^하다: 므스미 답답^하야= 緋紅(杜 7:36)
- 기웃^하다(欵): 幽深^하 고즌 기웃^하야 남괴 ㄹ독^하얏고= 幽花欵滿樹(杜 7:20)
- ㄹ죽^하다: 如來人 일후물…싱각^하야 고죽흔 므스미로 歸依^하면 (釋 9:16)

ㄹㄹ하다(蕭洒): ㄹㄹ 비치 正히 ㄹㄹ하다=秋色正蕭洒(杜 6:1)
 淸風은 물고 ㄹㄹ한 바람이라(月印 8:8)
 물ㄹ물ㄹ하다: 물ㄹ물ㄹ한 별와 들와는 노피 도댓고=磊落星月高(杜 1:15)
 서늘하다(涼): 涼은 서늘홀씨라(月印 10:105)
 스시하다(間): 다즈기 스실 디나샤(能 60)
 니플 스시하엿는 곳고리는…=隔葉黃鸝(杜6:33)
 장망하다(準備): 너느거스란 마오 그릇분 장망하라(月印 7:42)
 대도하다(共): 能王은 能의 申엿 王이니 대도하디 사스물 鹿王이라 하며 즘계
 남굴 樹王이라 하듯하야(月印 1:23)
 다뭇하다(與): 놀와 다뭇 의논하리오=與誰論(杜 8:46)
 놀와 다뭇하야 넷 이틀 議論하리오= 共誰論昔事(杜 20:8)
 그르하다(誤): 그르 알면 外道ㅣ오(月印1:51)
 비록 그르하야 지순이리 이셔도(釋 9:6)
 굴포하다(鼎): 鼎은 굴포 싸홀씨니(釋19:11)
 굴 닐우물 能히 바물 굴포하며 = 設詩能累夜(杜 20: 46)
 고돌파하다(強): 衰殘한 나해 이 모물 고돌파 든니노라=衰年強此身(杜 7:8)
 안젿는 소니게 盤飧을 고돌파하듯다=坐客強盤飧(杜 21:33)
 고즈기하다: 므스물 오을와 한 고대 고즈기 머저 西方을 想하라(月印 8:5)
 모물 고즈기 하야쇼몬 간곡한 뜻기을 사랑하는듯고
 =攬身思狡兔(杜 16:45)
 느즈기하다(低): 느즈기 횃도는 =低回(杜15:2)
 能히 큰 慈悲 ㄹ자 므스물 느즈기하야 (月印 21:139)
 ㄹ초하다(備): 論은 ㄹ초 니를씨라(月印 序 21)
 네 고볼 양지며 뒷논 지조물다 ㄹ초하야 뵈야(月印 7:15)
 조처하다(兼): 이분 아기를 조처 디오(月印 10:24)
 燭스 불자보물 조처하고=兼秉燭(杜 20:17)
 구디하다(固): 바물 구디 빠르게 하야(月印 21:102)
 안즈물 能히 구디호물 내 아노라= 自覺坐能堅(杜 20:10)
 새로이하다(新): 歲時에 새로이 하듯다.=歲時新(杜 6:30)
 굴죽하다: 눈 굴죽한 싹싹 비 悅澤(月印 18:5)
 다복다복하다: 다복다복하야 프른 지치 빗나고=芊芊爛翠羽(杜 7:37)
 두두룩하다(高廣): 두두룩한 칭주엿 피오= 坡陁青州血(杜 24:31)
 땃땃(땃땃)하다: 땃땃하야 수이 비브르는다= 滑易飽(杜 7:38)
 갓과 슬쾌 보드랍고 땃땃하샤(月印 2:40)
 반독하다: 方正은 모나미 반독홀씨오(月印 2:41)
 번득하다: 번득한 눈치 업소니=無 觀面(杜 25:55)
 번하하다(明): 밤누니 번하거늘(釋 6:19)

하늘 광명이 문득 번갯불(月印 2:51)
 쏘를하다(尖): 蜀山 뒤편 쏘를하다=蜀山尖(杜 23:42)
 뽕뽕하다(密): *뽕뽕한 대 수혜=密竹(杜 1:14)
 축축(축축)하다(濕): 축축한 氣韻으로 드외야 나느니라(釋 13:10)
 *술히 7마니 축축하다=肌膚潤沃苦(杜 14:2)
 칙칙(칙칙)하다(密): 니 마스니 7죽고 칙칙하시며(月印 2:41)
 *저근 비 바람 또 칙칙하니=小雨夜復密(杜 12:27)
 흰솔하다(豁然): 넷지불 本來사문 흰솔호물 依籍호니=古堂木貫籍跡豁(杜 7:19)
 흰하다: 짜히 흰하고 도흔 고지 하거늘(月印 2:6)
 흐워(흐워)하다: 이 그리물 對호야서 미스미 흐워하니=對此融心神(杜 16:29)
 일시웁비치 북고 흐워흐워하야 頻姿羅 1라 홀 여르미(月印 2:58)
 물궂물궂하다(磊落): 물궂물궂한 별와 돌와는 노피 도맏고=磊落星月高(杜 1:15)
 날혹즈늑하다(威遲): 날혹즈늑한 흰 鳳의 양지오=威遲白鳳態(杜 16:34)
 아스라하다(渺): 비롭과 너에 7蜀스 스미 아스라하니=風煙渺吳蜀(杜 6:47)
 우연하다(寬): 그 7백 如來 우연호샤 百千萬億 光明을 퍼시니(月印 21:9)
 衰老흔 病은 보야호로 저기 우연호리로다=衰疾方少寬(杜 6:46)
 두렷두렷하다: 잣남기...두렷두렷하야 양지 술위엿 蓋 7도다
 =有栢...童童狀車蓋(杜 18:15)
 남죽하다(餘): 7燕는 프리니...기리 열자 남죽하니(月印 1:6)
 되외좁좁하다(寂默): 7尼는 과외좁좁홀씨니(月印 1:15)

명사와 같이 독립성을 갖는 부사는 그 내용에 따라 동작성과 상태성으로 나누어 '하다'와 결합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현대국어에 와서 후자는 형용사로 분류된 다하더라도 중세국어와 제주도 방언에서는 동사성이 우세하였다.

이는 '하다'가 선행요소를 복사대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선행요소와 결합하여 동사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형용사+하다

국어의 형용사를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특징은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 및 동사에 붙는 다른 어미와 직접 어울리며 동사처럼 주서술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22) 7. 순애가 아프-Ø- 다.

- ㄱ' 순애가 아프-았/었-다.
- ㄴ. 순애의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다.
- ㄴ' 순애의 어머니께서 건강하-시- 았/었-다.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용사의 현재시제는 (22ㄱ)처럼 무형태소 이지만 (22ㄱ')에서 과거시제 어미 '-았/었-'과는 바로 어울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어의 존칭어미 '-시-'는 일종의 주어 일치 요소인데 (22ㄴ)과 같이 역시 형용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국어의 형용사는 다른 언어들의 형용사와 매우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대부분이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형용사는 상태성을 나타낸다. 형용사의 이러한 보편성은 국어의 형용사에도 적용된다. 이 성격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통사 현상으로 표현된다.

- (23) 순애가 아프-ㄴ-다.

(23)에서 '아프다'라는 형용사는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ㄴ-'과 함께 나타나지 못한다. 즉 동사와 함께 어울려서 현재 및 현재진행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는/은'과 형용사는 함께 나타나지 못한다. 현재 진행 시제는 행동을 전제로 하는 시제이므로 형용사의 상태성과 의미적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어 형용사가 규칙적으로 어울리는 굴절어미 중에 현재 진행 시제와 관계된 요소들만을 배제하는 현상은 형용사의 핵심적인 성격인 상태성이 국어에도 유지되고 있는 증거이다. 모든 동사가 다 행동동사는 아니다. 동사 중에도 소수의 상태성 동사가 있다. 그러나 모든 형용사는 예외없이 상태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형용사와 동사는 의존적 굴절형태소 뿐만 아니라 여러 구조에서 동사 '하-'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24) ㄱ. 순애가 바쁘지 아니-하-(*ㄴ)-다.
- ㄴ. 순애가 수일을 만나지 아니 -하-ㄴ-다.
- (25) ㄱ. 수일이 성격이 좋기는 좋다.
- 하-(*ㄴ)-다.
- ㄴ. 순애가 생선을 먹기는 먹는다.
- 하-ㄴ-다.
- (26) ㄱ. 학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ㄴ-다.

나. 순애는 오늘 서울에 가야 하-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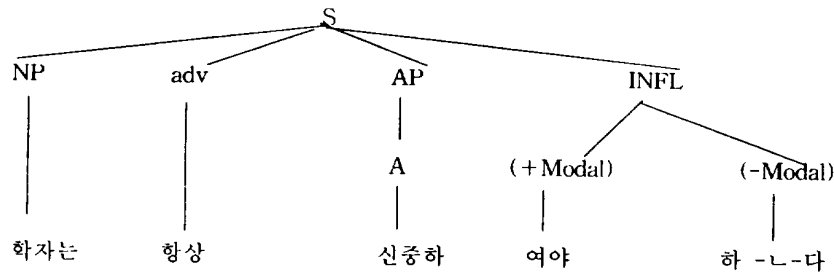
동사 '하-'는 최소한 행동성을 지닌 동사인데 어떻게 형용사의 상태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동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가?

또 (24),(25)에서는 굴절요소가 동사 '하-'에 덧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각각의 ㄱ에서는 여전히 현재시제형어미 'ㄴ'을 배제하고 있는데 왜 (26)에서는 주서술어의 범주와는 상관없이 이 형태소와 똑같이 동사 '하다'에 덧붙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조미정은 이와 같은 특징을 (26)의 문법동사 '하-'가 (24)와 (25)의 경우처럼 통사법칙에 의해 삽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만약 '하-'가 심층구조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26ㄱ)의 주서술어인 형용사가 아래의 비문법인 예처럼 현재 시제형 어미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7) *학자는 항상 신중하-ㄴ-다.

그러면 심층구조에 나타나는 요소로서 실제로 동작의 진행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26)에서 '-어야 하-'의 구조는 서술어인 형용사나 동사와 어울려 필요성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독립된 문법동사와 의존형태소가 함께 구성되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어의 형용사와 동사가 굴절요소교점 아래 지배되는 요소들과 공통으로 어울릴 수 있다. 이 위치에는 의존적인 굴절요소 뿐만 아니라 '-어야 하'와 같은 양상구조도 나타날 수 있다. 국어의 형용사가 연결동사의 매개없이 직접 주서술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구조와도 어울릴 수 있다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심층구조에서부터 굴절요소 교점 아래 나타나는 문법동사 '하-'의 역할은 심층구조에서 정해지지만 양상 구조의 일부로서 굴절요소 교점 아래 있는

동사적 위치에서 문법동사 ‘하-’의 행동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배-결속 이론에서 주제역할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매요소를 지배하는 어휘로 된 지배자, 즉 형용사가 부여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질이 지배하는 자매요소인 주제에게 주제 역할을 부여한다. 도표에서 구절구조의 핵의 자리가 아닌 굴절요소 교점아래 나타난 문법동사 ‘하-’는 아무리 독립된 어휘라고 해도 구조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주제역할부여에 참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자질은 (24)와 (25)의 경우처럼 효력이 없이 중화된다. 따라서 주서술어인 형용사의 상태성과도 대치되지 않는다.¹²⁾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하다’와 결합하는 모든 명사와 부사의 기저구조는 ‘명사/부사+하-’라는 논리인데 그러면 명사와 부사라는 명칭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제주도 방언과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빗깔 형용사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1) 제주도 방언에서의 빗깔 형용사

‘가망다’의 방언형으로는 ‘가망ㅎ다, 거멍ㅎ다, 까망ㅎ다, 꺼멍ㅎ다, 거므스름ㅎ다’ 등이 있다. 접두사 ‘시-, 새-, 깃-’이 연결되어 사용되는 다른 어휘와 마찬가지로, ‘-스름-’이 들어간 ‘거므스름다’는 ‘덜 가망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도 또한 다른 어휘와 같다.

- (28) ㄱ. 서쪽 하늘이 어에 거멍해 불언.
 (서편하늘이 갑자기 거멍게 돼버려.)
 ㄴ. 이 자리도새긴 털광 꺼멍호 게 잘도 윤지우다.
 (이 ‘자릿돼지’는 털도 꺼멍게 된 것이 잘도 ‘윤집니다’.)
 ㄷ. 시러미가 가망호게 익어십테다.
 (시로미가 가망게 익었습니다.)

(28ㄱ)은 날씨를 미리 짐치어 보는 말에 해당한다. 서쪽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거멍게 되어 비가 올 듯하다, 또는 바람이 일 것 같다는 뜻으로 쓰인다.

12) 조미정, 「국어 형용사의 특징과 문법동사 -하의 관계」, 『국어국문학』97 (국어국문학회, 1987), pp.200~202.

(28ㄴ)의 '자릿도새기'란 '아직 어려서 두 마리를 같은 우리에 넣고 기르는 꼬마 돼지'를 말하는 제주도 방언이며, '윤지다'는 '길짐승의 새끼가 보통보다는 살지고 아주 크다'는 뜻이다.

'노랑다'의 방언형으로는 '노랑하다, 누렁하다, 노리롱하다, 누리롱하다, 노리스루이다, 누리스롱하다'등이 있다. '롱, 룡, -스롱-'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노리롱하다, 노리스롱하다, 누리스롱하다'들은 '덜 노랑고 덜 누런 빛깔'을 나타내는 어휘로 다양한 빛깔 감각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접두사인 '시-, 새-, 짓-'이 연결되어 사용된다는 점은 다른 색채어휘와 같다.

(29)ㄱ. 유채고장 노랑하게 잘도 피어서라.

(유채꽃이 노랑게 잘도 피었더라.)

ㄴ. 그 치매 멀리서 보낸 노리롱흔 게 고와라.

(그 치매 멀리서 보니까 노르무레한 게 곱더라.)

ㄷ. 지네 보린 누렁흔게 너무 익어부난 그만씩흔 비름에도 누엇주.

(자네 보리는 누렇게 너무 익어서 그만큼한 바람에도 누웠지.)

ㄹ. 춤웨밭디 가보난 이제사 노리스롱헛서라.

(참외밭에 가보니 이제야 노르스름하게 되고 있더라.)

'벌겅다'의 방언형들로 '벌겅하다, 빨강하다, 불고롱하다, 불그스롱하다'등이 있으며 '시-, 새-, 짓-'을 앞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30)ㄱ. 동편 하늘이 벌겅흔 게 또 산불났구나.

(동편하늘이 벌겅게 된 것이 또 산불 놓았구나.)

ㄴ. 탈 하영 타 먹어부난 손이영 입바위영 불고롱헛였주.

(산딸기 많이 따 먹어 손과 입술이 빨그래하였지.)

ㄷ. 보리낭으로 불 솟단 보난 양지가 불그롱헛여수다.

(보리짚으로 불 때다보니 얼굴이 빨그레 하였습니다.)

ㄹ. 앞 우영엿 양두 빨강흔게 잘도 익어십데다.

(앞 뜨락에 있는 앵두 빨강게 잘도 익었습니다.)

'파랑다'의 방언형으로는 '파랑하다, 피렁하다, 푸리롱하다, 파리롱하다, 피렁하다'등이 있다. 이중 '피렁하다'는 파란 빛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보통은 좋지 못한, 불쾌한 뜻으로 자주 쓰이는 것 같다. 물론 접두사 '시-, 새-, 짓-'이 연결되어 사용

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 (31) 가. 먼 하늘이 파랗흐연 비 아니오쿠다.
(먼 하늘이 파랗게 되어 비 아니 오겠습니다.)
- 나. 눈 맞인 '퍼데기'는 퍼렁해사주.
(눈 맞은 '퍼데기'는 퍼렇게 되어야지.)
- 다. 아시네 마농은 파리롱해연 금이나 받아 지크란게.
(아우네 마농은 파랗게 되어 값이나 받을 수 있겠더라.)
- 르. 양지가 퍼렁흔 게 곧 죽엄직이.
(얼굴이 파리한 게 곧 죽을 듯이.)

(31나)의 '퍼데기'란 배추의 한 종류로 노랗고 하얀 배추속대가 없이 잎이 옆으로만 퍼져서 마치 위에서 누른 듯 납작한 배추를 말한다'

'희다' 계열의 방언형으로는 '히다, 히영흐다, 하양흐다, 허영흐다, 해영흐다, 헤지근흐다, 헤뜩흐다, 해뚜룩흐다, 히뚜룩흐다, 히뚜롱흐다' 등이 있다.

- (32) 가. 저 사금파리 너미 히영흐여부난, 눈즈급다 치와불라.
(저 사금파리는 너무 희어 눈이 부시다.)
- 나. 이 하양흔 종이에다 앵그리몬 써지느냐?
(이 하얀 종이에다 그렇게 낙서를 하면 쓸 수 있겠느냐?)
- 다. 헤영흔 듯깨긴 짐치에 감아 먹어사 먹어진다.
(허연 돼지고기는 김치에 말어 먹어야 먹어진다.)
- 디. 이제 헤지근웁시메 밧디 굴라.
(이제 날씨가 점점 맑아지고 있으니 밧에 가자.)
- 디. 헤뜩헛당 비오꼭 헤뜩헛당 비오꼭 어디 검질 매지크라.
(빛이 잠깐 비쳤다가 비오고 빛이 잠깐 비쳤다가 비오고 어디 김 매지겠는가?)
- 디. 창이 헤뚜룩호기 전에 나사사 얼굴에 거미줄 걸리주.
(창이 해옴스름하기 전에 준비를 마치고 길을 나서야만 얼굴에 거미줄 걸린다.)
- 디. 이 빨래는 히뚜룩흔 게 슬픈 생이여.
(이 빨래는 '히뚜룩한'게 슬픈 모양이다.)
- 디. 히영흔 게 눈 더핀 할락산은 어디서 보아도 좋습주.
(하양게 눈 덮인 한라산은 어디서 보아도 좋습니다.)

제주도방언의 빛깔 어휘들을 표준어와 견주어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표준어에서는 형용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면, 제주도방언의 어휘들은 형용사의 성격과 함께 동사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표준어에서는 빗갈의 농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시-'와 '새-'라는 접두사가 연결되어 '거뭇다'가 '시거뭇다', '새까맣다'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있다면, 제주도방언에서는 '짓-'이란 접두사까지 연결시켜 '시벌경흐다, 새빨강흐다, 짓빨강흐다'로 사용하여 감정 표현의 차이를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¹³⁾

제주도방언에서는 빗갈에 대한 표현이 상태동사 기본 어간에 일차 단계로 '-ㅇ-'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흐다'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의 색채에 대한 기본 표현어인 '노랗다' '퍼렇다' 등도 '노라+∅+흐다' '퍼러+∅+흐다'와 같은 기저형으로 가정할 수 있다.

(33) ① 노랑흐다

누렁흐다

①'노리붉흐다

노리수붉흐다

노립조고붉흐다

누리붉흐다

누리수붉흐다

①'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② 빨강흐다

벌경흐다

②'불구스름흐다

②'붉으스름하다

③ 까맣흐다

거뭇흐다

가맣흐다

③'거무스름흐다

③'검으스름하다

④ 파랑흐다

퍼렇흐다

13) 강영봉, 『제주언어 I』 (제주문화, 1997), pp.18~29.

- ④' 푸리롱하다
파리롱하다
푸리수롱하다
- ④'' 푸르스름하다
파르스름하다
- ⑤ 하양하다
허영하다
- ⑤' 히푸롱하다
- ⑤'' 하야스름하다

(33) ①~⑤에 대한 기본 표현에 관해서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파생표현이 (33) ①'~⑤'이며 이들의 표준어를 (33) ①''~⑤''로 설정할 수 있다.

①'~⑤'가 '상태동사 파생어간 +ㅁ+하다'로 ①''~⑤''가 상태동사 '파생어간+ㅁ+하다'로서 똑같은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제주도방언의 '-ㅁ-'이 명사화 접미사라는 것은 표준어의 '-ㅁ-'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 (34) 불이 노랑했저.
하늘이 퍼렇했수다.
양지가 변경했심게.
솔바위가 거멓했수다.
그만해도 얼굴 호양했시네게.



(34)와 같이 '-하다'에 대해서 동사와 동일한 어미활용을 시켜서 동작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색상의 상태를 변화하는 것을 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것은 '하다'의 어간에 결합된 지속상 형태소인 '-암시-/-엄시-'이다. 이 '-암시-/-엄시-'는 '-고 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선행 동작이 다음 동작으로의 이행을 표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35) ① 푸르스름하다(푸리롱하다: 방언형)
→*㉠ 하늘이 푸르스름하고 있어요.
㉡ 하늘이 푸리롱했수다.(방언형)
② 붉으스름하다(블그롱하다: 방언형)
→*㉢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있다.

㉔ 열달이 불그수롱헙찌.(방언형)

(35)와 같이 '-암시-/-엄시-'는 '-고 있-'에 대응된다고 해서 방언형과 같은 ㉔의 표현을 ㉔과 같이 표현할 수는 없다. 여기서 제주도 방언의 상태동사를 동작화시키는 특수한 언어형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방언에서는 상태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왜 지속상 형태소인 '-암시-/-엄시-'를 결합시키는가? 이것은 색채의 현상도 하나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 색채가 '변한다'라는 명제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¹⁴⁾

즉 제주도 방언의 빛깔 형용사를 명사화하여 '하다'를 첨가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형용사가 본래 동사와 형태에서 공통된 것이어서 그 형태를 일일이 예시하지는 않으나 특기할 것은 기본어간에 '-ᄃ-'을 붙이고 '하다'를 제 2차로 붙여 형성하는 일군의 형용사이다. 퍼렁하다(靑), 벌경하다(赤), 진노랑하다(眞黃), 거멍하다(黑), 히미꾸롱하다(模糊하다), 맨드롱하다(미지근하다) 등이 있다.

이런 형성은 참으로 흥미있는 형성법이며 표준어에서는 그렇그렇하다, 어수룩하다 처럼 -ᄃ-, -k(g)-으로 간혹 나타난다.

2) 중세국어의 빛깔형용사

중세국어중 빛깔형용사에서도 제주도 방언에서 보인 것처럼 '하다'가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36)ㄱ. 物이 하야호야(杜: 8:53)
하야호 셤 머리터리(杜: 17:8)
서근 매 하야호야 물어데시니(杜: 16:33)
늑는 버른 프래 디나 해야호고(杜: 11:47)
비는 긴 그롬물 머거 해야호도다(杜: 12:13)
ㄴ. 늑출 마조 보와서 거머호물 슬코(杜: 20:27)
ㄷ. 감은 불가프라호 씨라(法華 2:12)

14) 강정희, 「제주도 방언의 동작화 과정에 대하여」, 『제주 방언연구』 (한남대출판부, 1988), pp.226~227.

- 고준 촌 곳부리 벌거호미 이긔엿도다(朴: 10:38)
 리. 마르멧 雲霧 | 누러호도다(朴: 10:45)
 나. 터리는 프러누리코(朴: 16:40)
 터릿 비치 프라불가호사미(月釋 2:58)
 몐 나뭇 그티 퍼리호고(朴: 6:48)
 굿 우미 파라호도다(朴: 6:51)

‘하야호다, 거머호다, 벌거호다, 누러호다, 퍼리호다’ 등이 어원적으로 ‘용언어간 + -아/어 호다’ 구문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희다, 검다, 붉다, 누르다, 프르다’ 등의 형용사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누러호다’류와 ‘누르다’류를 대조해 보면 비단 활용에서 판이할 뿐 아니라 ‘누러호다’류가 ‘누르다’류 보다 동작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아/어 호-’가 개재되어 동작성 유무의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37)과 같이 ‘누러호다’류가 형용사외에 동사로 쓰인 예도 보인다. 이것은 이미 ‘-어 호-’가 결합되기 전에도 동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37) 어드우락 도로 희느니(朴: 7:14)
 샷길 나호니 터리 붉느니라(朴: 8:19)

‘누르다’ 등이 ‘누러호다’ 등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먼저 형용사 어간에 ‘-아/어 호-’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형용사 어간의 ‘ㄹ/ㄴ’ 모음이 ‘ㄱ/ㄷ’모음으로 변화되는 절차를 생각해야한다. 위 (36)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 단계에 모음의 변화가 없는 것 ‘불가프라고’, ‘프라불가호사미’ 등과 저모음으로 변화를 입은 것 등이 함께 쓰이고 있다. 이것은 빗갈 형용사 어간이 ‘-아/어 호-’에 결합될 때 필수적으로 선행어간의 모음동화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보다 후대에 음성상징에 의해 ‘ㄹ/ㄴ’모음이 ‘ㄱ/ㄷ’모음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런 빗갈어들이 많은 공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문헌에서 이러한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예들이 더 찾아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희다’와 ‘희다’가 공존하지만 단독형으로는 ‘*해다’ ‘*헤다’가 文證되지 않은 점 ‘붉다’가 존재하지만 ‘붉다’는 ‘紅’의 의미로는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쓰일 경우, 다른의미 ‘뽀’으로 나타나고 합성 어간으로 ‘붉-(紅)’이 나타나고 있다. ‘붉다’, ‘뽀다’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프르다, 프를다, 프르

다'가 공존하고 있음에 비해 '퍼르다', '파르다' 등이 찾아질 때 음성상징 운운은 보다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간의 'ㄴ, /ㄴ'모음이 '나/너'로도 표기되는 현상은 다음의 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38) 히어디디(杜: 16:28)
 히야더(小諺 6:61)
 해어디니라(杜: 1:9)
- (39) 히야브리고(杜: 1: 9)
- (40) 해야로비(杜初 7:7)
- (41) 흐려디고(杜: 20: 16)
 히려듀미(杜: 22:11)

위의 (38) ~ (41)의 예들은 어두음절에서의 /ㄴ ~ ㄴ/, /ㄴ ~ ㄴ/의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예들은 또한 '해야하다(히)'가 '하야하다'로 표기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해준다. 훈민정음은 원래 그 성격상 음소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음 창제자들이 한자의 이분적 음절구조를 본받아 삼분적인 음절로 표기했기 때문에 /j/는 표기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히'를 의미하는 '히다' 혹은 '*해다'는 '해야하다'가 된 다음, 소위 /j/interlude 현상에 의해 '하야하다'로도 기록되면서 정작 '해야하다' 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국어에 관한 한, '하야하다'는 꽤 많이 등장하지만 '해야하다'가 그리 나타나지 않은 이런 연유에서가 아닌가한다.¹⁵⁾

- (42) 거머하다(黑): 누출 마조 보와서 거머하물 슬코=會面嗟黧黑(杜: 20:27)
- 별거하다(紅): *고존 촌 곳부리 별거호미 이기엿도다=花禁冷樂紅(杜: 10:38)
- 누려하다(黃): *그르멧 雲霧 | 누려하다.=江霧黃(杜: 10:45)
- 파라하다(綠): 𦏧 우미 파라하도다=芦莽錄(杜:6:51)
 靑衣는 파란 옷 니븐 갓시라(月印2:43)
 錄은 푸르씨라(月印 8:10)
- 퍼려하다(靑): 몃 나뭇 그티 퍼려하고=葱靑衆木梢(杜: 6: 48)
- 프러누려하다(靑黃): 터리는 프러누려코=毛爲綠縹(杜:16: 40)
- 불가프라하다(紅綠): 紺은 불가프라홀씨라(法華 2:12)

15) 이현희, 「'하다'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한신논문』2 (한신대, 1985), pp.222~228.

꼭라불가흐다: 터릿 비치 꼭라불가흐샤미 孔雀의 모기 𑖇ᑦᑦᑦᑦᑦ(月印 2:58)
하야흐다(𑖇): 物이 하야흐다=物𑖇(杜 8:53)
허여흐다: 서리엿 엿피 허여호물 𑖇ᑦᑦ ᑦᑦᑦᑦᑦ=𑖇ᑦᑦᑦᑦᑦ(杜 7:40)

(42)과 같이 ‘빛깔형용사 어간+흐다’가 결합된 형태와 ‘거머다, 노라다, 꺾라다’ 등이 중세국어에서 병존하고 있었는데 이는 ‘거머흐+다’라는 식의 분석이 타당하지 않음을 말한다.

제주도 방언의 ‘거멍흐다’는 중세국어의 ‘거머흐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거머’와 ‘흐다’사이에 ‘-ᑦ-’이 첨가된 형태라고 하겠다.



IV. 결 론

본고는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하다’동사의 기능을 바탕으로 제주도 방언, 중세국어에서 각각 어떻게 출현했는지 살펴보고 빛깔 형용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다’는 기원적으로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동사로서의 특성은 어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포괄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파생접미사로서의 기능도 점차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 어간의 ‘하’와 접미사로서의 ‘하’와 같이 ‘하’의 이원적 기능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중간 범주의 영역이다

2. ‘명사+하다’형에서 ‘하다’는 원래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인데 목적격표지의 생략으로 동사구와 복합동사의 공존관계를 거쳐 파생동사화 한다.

‘목적어+하다’의 형식 앞에서는 부사가 쓰이는 것이 가능하며 목적격 표지가 생략된 형태로 보는 것이다. 완전한 복합동사 사이에 부사가 첨가되면 ‘하다’가 명사가 아닌 부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와 ‘부사+하다’의 형식으로 처음과 다른 구조를 갖게 된다.

3. 부사에 ‘하다’삽입규칙이 적용되면 명사와 결합할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격표지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으며 결합이 긴밀하여져도 부사의 비굴절적 성격으로 인하여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목적어 ‘무엇’과 부사어 ‘어찌’가 다같이 대동사 ‘하다’의 선행 요소로 가능하다. 이는 명사와 부사가 갖는 독립성이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성을 나타내게 됨을 말한다. 상태성어근 ‘어떠’ 뒤에 쓰이는 ‘하다’는 선행 요소의 상태성에 동사성을 첨가한다. ‘상태성 부사+하다’의 형태에서는 앞의 선행부사가 지닌 상태성에 동작성이 가미된 형태를 만든다.

4. 제주도 방언의 빗갈 어휘들을 표준어와 건주어 볼 때 표준어에서는 형용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면, 제주도 방언 어휘들은 형용사의 성격과 함께 동사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빗갈에 대한 표현들이 상태동사 기본어간에 일차 단계로 '-o-'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ㅎ다'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준어의 '상태동사 파생어간+o+하다'와 똑같은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제주도 방언의 '-o-'이 명사화 접미사라는 것은 표준어의 '-o-'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확실하다.

5. '하야ㅎ다, 거머ㅎ다, 벌거ㅎ다, 누러ㅎ다, 퍼러ㅎ다' 등이 어원적으로 '용언어간 + -아/어 ㅎ다' 구문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히다, 검다, 붉다, 누르다, 프르다' 등의 형용사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누러ㅎ다'류와 '누르다' 류를 대조해 보면 비단 활용에서 판이할 뿐 아니라 '누러ㅎ다'류가 '누르다'류 보다 동작성을 갖고 있다.

현대국어의 '하다'는 본래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한데 빗갈형용사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과 중세국어에서는 이것이 가능함을 보았다. 이는 제주도 방언의 'ㅎ다'가 중세국어적 성격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자료>

訓民正音

龍飛御天歌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杜詩諺解

小學諺解

法華經諺解

金剛經諺解

靑丘永言

제주도, 제주어사전, 1995.

남광우, 고어사전, 일조각, 1993.

<단행본>

강영봉, 『제주의 언어』 I, 제주문화, 1994.

——, 『제주의 언어』 II, 제주문화, 1997. UNIVERSITY LIBRARY

강정희, 『제주방언연구』, 한남대 출판부, 1988.

고영근,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출판부, 1989.

김영석외, 『현대 형태론』, 학연사, 1993.

서정수,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1975.

국어학회,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1991.

안병희,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2.

안병희외, 『중세국어문법』, 학연사, 1996.

이기문,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1997.

이승녕,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1985.

이승녕,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1992.

- 최현배, 『우리말본(김고 고침)』, 정음문화사, 1986.
 홍종립,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1993.
 현평효, 『제주도 방언연구 -논고 편』, 이우출판사, 1985.

<논문>

- 강공택, 『제주방언의 반복복합부사 구조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강길운, 『대용어 ‘하다’에 대하여 - 고등국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3, 국어국문학회, 1961.
 김영희,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9, 배달말학회, 1984.
 김제열, 『‘하다’동사의 문장보어연구』, 국어학회 발표요지, 1996.12.
 김제열, 『‘하다’의 의존적 성격고찰』, 『경희어문학』 15,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1984.
 김지홍, 『국어 부사형 어미 구문과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2
 김지홍, 『제주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김창섭,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2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7.
 김한곤, 『서술화 동사로서의 do에 관한 소고』, 『언어교육』1, 언어교육회, 1972.
 부희숙, 『제주서사무가에 나타난 어휘형성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서정수, 『‘하-’와 ‘되-’에 대하여』, 『어학연구』 27-3, 서울대 어학연구소, 1991.
 서정수, 『기능동사 ‘하’』, 『말』15, 연세대 한국어학당, 1991.
 서정수, 『동사 ‘하-’의 기능』, 『국어국문학』 68·69, 국어국문학회, 1975.
 성광수, 『불완전 명사 +(하다, 이다)에 대한 생성론적 분석』, 『어문논집』17,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1976.
 성낙수,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68·69, 국어국문학회, 1975.
 송병학, 『‘하’에 관한 연구: 통사의미론적 구조 분석』,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74.
 송상조, 『제주도방언 접미파생어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0.

- 시정관, 「'x를 하다'와의 상관성」, 『국어학』24, 국어학회, 1994.
- 안병희, 「중세국어동사 'ㅎ-'의 어간 교체에 대하여」, 『문호』2, 건국대, 1962.
- 양명희, 「서술성 완결동사 '하」, 『주시경학보』 6, 탑출판사, 1990.
- 양명희, 「현대국어 동사 '하-'의 의미와 기능」, 『국어연구』96, 국어연구회, 1990.
- 우인혜, 「'하다' 따위 용언의 피동문제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48·49, 국립국어연구원, 1993.
- 윤만근, 「동사 '하-'의 통시적 관찰을 통해본 그 성격과 동사 '하-'의 기저구조」, 『언어학』5, 언어학회, 1982.
- 이기동, 「동사 '하다'의 문법」,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1991.
- 이상복, 「'하다'동사에 대하여」, 『연세어문학』6,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75.
- 이창덕, 「동사 '하'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이현희, 「'ㅎ다'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한신논문』2, 한신대학교, 1985.
- 정 광, 「'하-'동사활용의 음운론적 해석-'하-'의 기저음운표시와 'ㅎ야>하여, 해'의 변천을 중심으로-」,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6.
- 정승철,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정원수, 「'x+하-'유형의 어형성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6, 충남대, 1989.
- 조미정, 「우리말 형용사의 특징과 문법동사 '하-'의 관계」, 『국어국문학』97, 국어국문학회, 1987.
- 채희락,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32-3, 서울대어학연구소, 1996.
- 최규일,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9.
- 한정환, 「'하-'의 조음적 특성과 통사정보」, 『국어학』23, 국어학회, 1993.
- 허 응, 「'ㅎ다'용언고」, 『아세아 학보』1, 영남대, 1965.
- Song Seok-choong,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Indiana University, 1967
- Park Byung-Soo, *The Korean Verb ha and Verb Phrase Complementation*, *Language Research*, Vol.10, No1, 1974

<Abstract>

A Study of '*Heta*' in Cheju Dialect

Kim, Mi J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Young Bong

The study of '*heta*' in Cheju dialect has hardly been accomplished because its usage and conjugation are not thought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standard Korean. Therefore this thesis seeks to similarities of '*heta*' both in Cheju dialect and standard Korean, and then explain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heta*' by examining the previous studies of '*heta*'.

In Cheju dialect '*heta*' is added to nouns, nominal form, adverbs/adverbial forms, and adjective stems, with the result that they can all have the dynamic quality. So its usages as <noun+*heta*>, <adverb+*heta*> and <adjective+*heta*>, enumerates each of these examples, and describes their properties in detail. It is unique that the form of 'color adjective+*heta*' appears only in Cheju dialect, which can be seen in Middle Korean.

The studies of '*ha-*' are too various to be classified by some common

criterion. Some studies argue differently, though they are partially agreed upon some opinions. Therefore, this thesis gathers to classify the studies one another which has an approximate view in most part.

Etymologically '*hata*' had verbal quality. It is guessed that the function as derived/derivative suffix appears step by step as the function as verb are various more and more because the stem has comprehensive meaning. '*Heta*' belong to the middle category which accomplishes the dual functions of '*ha-*' as verbal stem and '*ha-*' as suffix.

In the form 'noun+*heta*', '*heta*' was originally a transitive verb. However, due to the ellipsis of objective markers this form has become deverbalized. '*Heta*' has a property of higher notion which includes adequate meaning as each context without using the specific verbs to express the actions which relates its precedent elements. The meanings of '*heta*' are determined by linguistic social factors or linguistic cultural ones, not by the precedent noun regularly.

When the '*heta*' insertion rule applies to adverbs, there is an aspect different from the '*heta*' combination with nouns. Although there is no case marker and the combination is very strong, 'adverb+*heta*' does not use as a word because of its uninflexional character. '*Heta*' can be preceded by both an object and a adverbial complement. It means that the nouns and adverbs shows the property of verbs by combining with '*heta*'. An independent adverb functions as a verb in the pattern of 'active adverb+*heta*'. '*Heta*' following the static root adverbial complement has the state of the preceding component. Therefore, the form of 'static adverb+*heta*' becomes a static verb.

Compared with the color-words of the standard Korean, those in the Cheju dialect have the property of a verb as well as that of an adjective, while those of the standard Korean keep the property of an adjective only.

In the expression of color, first '-*ŋ-*' is added to the original root of a static verb and then combined with the verb '*heta*' in Cheju dialect. It shows the same paradigm with the pattern of <the derivational stem of the static verb +m+*heta*> in the standard Korean. The color adjectives indicate the character

that they combine with the continuative aspect morphemes ‘-amsi-/-õmsi-’, though they are static verbs. By doing this, they shows the changes of color. It is obvious that ‘hayaheta’, ‘kumuheta’, ‘bulguheta’, ‘nuluheta’, ‘puruheta’, and so on are derived from the phrase of <stem+ -a/-õ heta>, comparing with adjectives like as ‘heta’, ‘kumta’, ‘bkta’, ‘nulta’, ‘prta’, etc. The kind of ‘nuluhe ta’, is distinguished from those of ‘nulta’ not only by conjugation but by dynamic quality, which is former’s property. In modern Korean, ‘hata’ originally can combine with adjective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ombine color adjectives. As this thesis shows, in Cheju dialect and middle Korean it can combine color adjectives. It means ‘heta’ in Cheju dialect still keep the property of Middle Korean yet.

